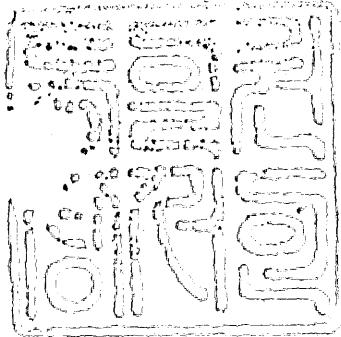




본 『南北對話 年表』는 南北會談 및  
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
· 北韓 主要動向 · 周邊動向 等을 綜合  
整理한 것으로서 統一 · 對話업무의 基  
礎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입니다.

# 남북대화연표(94-Ⅳ)

〈1994. 10. 1~12. 31〉



통일원  
(남북회담사무국)

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1	<p>0 金泳三 대통령, 남북대화 조기개최 촉구 * 제46회 국군의 날 치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문제를 비롯하여,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비통제문제, 그리고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협의를 위한 남북간의 接觸은 빠를수록 좋음.</li> <li>-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역에 꽂피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'통일의 길'임.</li> <li>- 북한의 開放과 改革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, 민족의 통일도 진전될 수가 없음.</li> <li>- 북한이 核무영성을 보장하고 개방과 개혁의 길을택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것임.</li> </ul>	<p>0 최정남(한총련 대표), 단군릉 준공식 참석차 入北 (10.1~11.24)</p>	<p>0 갈루치 美핵담당 대사, 本國정부와 核협상대책 협의차 위싱턴 귀환</p>
10. 2	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'경수로지원 이전 특별사찰' 고수 표명 * 기자간담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수로지원 이전에 과거</li> </ul>	<p>0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, 平壤 방문 (10.2~6)</p>	<p>0 홍콩 『鏡報』誌, 中, 한반도 유사시 대비 대규모 훈련 실시 보도</p> <p>- 중국은 한반도에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0. 2	의 핵의혹 규명을 위한 사찰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마지노선임.		상륙하여 북한을 지원하고 韓·美에 대항하는 것이 전술목표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8.23 遼東반도에서 실시 했음.
10. 3	<p>0 姜英勳 『韓赤』총재, 북한지역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페스트가 東北亞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북한지역에서의 콜레라 퇴치와 방역을 위해 南과 北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북한 적십자측에 제의 함.</li> <li>- 우리는 일차적으로 필요 한 의약품을 제공할 준비 가 다 되어 있음을 알림.</li> <li>- 우리 적십자인들은 진정 으로 人道主義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민족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 함.</li> </ul>	<p>0 단군릉복구위원회 대변인, 준공식 연기는 남한 인사들의 도착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주장 (記者會見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이미 초청한 바 있는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도착 할 시각을 기다리며 예정된 단군릉 준공식을 미루고 있음</li> <li>- 이러한 조치는 단군릉을 개건 하여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도모하고 5천년 역사국의 위상을 선양하려는 金日成의 애국애족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됨.</li> </ul> <p>0 북한 외교부 대표단, 중국방문 차 平壤 출발</p> <p>* 단장 : 외교부 부부장 조규일</p>	<p>0 美·北 실무자회담 개최 (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)</p> <p>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, 北核문제 중국과 긴밀협력 언급</p> <p>* 美·中 외무장관회 담후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 핵문제를 다뤄나가는데 있어서 중국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함.</li> <li>- 우리는 북한에 관해 일치하는 입장 을 갖고 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0. 3	<p>0 李榮德 국무총리, 北 사회 개방 촉구 * 개천절 경축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은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회를 개방, 책임있는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함</li> <li>-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족공존공영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기를 바람.</li> </ul> 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核 해결땐 北 경제개발 지원 용의 표명 * 제49차 UN총회 연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가 해결되면 南北 공동번영의 정신아래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음.</li> <li>- 북한 핵문제는 NPT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중의 하나이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음.</li> <li>- 북한 핵의혹 해소를 위해 서는 과거·현재·미래의</li> </ul>		<p>0 美항모 키티호크, 동해에서 철수 * 워싱턴 포스트誌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근해에 배치 됐던 美항공모함 키티호크號가 부산 을 떠나 일본 동쪽 해역으로 철수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3	<p>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.</p> 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'北, 핵연료봉 재장전엔 美·北 회담 기초 깨질 것' 경고 * 뉴욕 한국특파원 간담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연료봉의 재장전은 美·北간 회담의 기초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, IAEA가 북한핵문제를 安保理에 회부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되는 계기가 될 것임.</li> </ul> <p>0 李敏燮 문화체육부장관, 월드컵 南北공동개최 제의 방침 표명 * 아사히신문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남북한 공동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임.</li> </ul>		
10. 4	<p>0 李炳雄 『韓赤』사무총장, 김인서·함세환과 북한 가족들간 서신왕래사실 공개 * 국정감사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1년 출소한 미전향자 김인서(65. 일명 김국홍)와 함세환(62) 2명이 각각 을 6월, 8월부터 국제적</li> </ul>	<p>0 『祖平統』, 金泳三 대통령 국군의 날 치사 비난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이 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있는 것은 北南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부정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임</li> </ul>	<p>0 美·北 실무자회담 개최 (제네바)</p> <p>0 펠레트루 美국무차관보, 美·北고위급 회담시 북한측에 미사일 대외판매 중지 요구 확인 * 美상원 외교위 청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4	<p>십자위원회(ICRC)를 통해 극비리에 서신왕래를 해 왔음.</p> 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갈루 치 美 核대사와 核협상 대 책 협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해 나선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 관할수 없으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.</li> <li>0 제4차 블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平壤영화축전 폐막 (9.26~10.4, 국제영화회관)</li> <li>0 黨·政대표단 (단장: 이종옥), 중국방문 종료 (9.28~10.4) * 9.29 江澤民 중국주석, 9.30 李鵬 총리 면담</li> </ul>	<p>문화 증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 외판매 중지를 요 구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불만족스러 운 것이었음.</li> </ul>
10. 5	<p>0 金泳三 대통령, 南北정상 회담 북한측 제의 차례라 고 언급 * 경향신문 창간 48주년 특별회견</p> <p>- 南北정상회담은 북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을 이유 로 연기를 요청한 만큼 북측이 우리측에 제의하 는게 순리임.</p> <p>- 회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 항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 협의해야 할 것임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平放, 姜英勳 『韓赤』총재의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거 부 (論評)</li> <li>-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해서 공화국 북 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 든 질병과 전염병들이 완전히 없어졌음.</li> <li>- 오늘 우리 인민들은 콜레라라 는 말은 보도를 통해서 듣거 나 의학사전을 통해서만 알고 있음.</li> <li>- 무슨 콜레라 확산이요 뭐요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남을 물고 넘어지는데 이꼴이 난 괴뢰들만이 할 수 있는 파렴 치한 수작임.</li> </ul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석대표회담</li> <li>0 폐리 美 국방장관, 北核 美 중대 안보 문제라고 언급 * 기자회견</li> <li>- 북한 핵문제가 해 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핵은 美國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가 될 것임.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5		<p>0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, 제49차 UN총회 연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며 혁명 무력의 최고사령관임.</li> <li>- 김정일은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그에게 모든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음.</li> <li>-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세우는 것임.</li> <li>-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 누구도 여기에 관여할수 없음</li> </ul> <p>0 사회민주당 대변인,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 談話</p> <p>0 金正日, 朝·中외교관계 설정 45돌 즈음 강택민 중국 주석에 祝電</p> <p>0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제2차 학술발표회(10.5~7, 인민문화 궁전)</p>	<p>0 江澤民 중국주석, 국교수립 45돌 즈음 김정일에 祝電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의 두리에 굳게뭉쳐 김일성의 생전의 뜻을 이어 사회주의 건설위업에서 더큰 성과를 이룰 것을 축원함.</li> </ul> <p>0 日 아사히신문, 中, 북한에 원유제공 통보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은 145만t의 원유를 절반은 무상, 절반은 국제시세의 절반가격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최근 北韓에 통보 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6	<p>0 李炳台 국방부장관, 北위협 소멸 전제로 『東北亞 집단안보체제』 제의 * 美육군대학원 연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北위협이 소멸되는 시기가 오면 韓美안보동맹은 종래 방위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'東北亞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동맹'으로 그 성격과 역할을 점차 확장시켜야 함</li> </ul> <p>0 韩·美, 한국군 평시작전권 12월 인수 합의 * 제16차 韩·美군사위원회(MCM) 회의 (워싱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국은 韩·美연합사가 보유해온 平時작전통제권을 12.1부로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</li> </ul> <p>0 韩昇洲 외무부장관, 日本,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조건부 지지 표명 * 韩·日외무장관회담 (도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맡으려는 것을 이해함.</li> </ul>	<p>0 사회과학원 대변인,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 談話</p> <p>0 정무원 총리 강성산, 朝·中 외교관계 수립 45돌 즈음 이봉 중국 총리에게 祝電</p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 * 대표단 전체회담 및 수석대표회담</p> <p>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, 北연료봉 재장전 우려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 寧邊 5㎿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되는 문제로, 핵협상의 시급성을 제기하는 문제중의 하나임.</li> </ul> <p>0 카터 美국방차관보, 韩·日 핵공격 받을 땐 美 대응공세 표명 * 美하원 외무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대응을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.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7	<p>0 제26차 韓·美 안보협의회 의(SCM), T/S훈련 실시여부 10월중 결정 합의 * 李炳台 국방부장관, 폐리 美 국방부장관 참석 (10.6~7, 워싱턴)</p> <p>- 韓·美상호방위조약의 이행과 미국의 계속적인 핵우산 제공, 주한미군 감축유보 등을 재확인</p> <p>-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에 의거 영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</p> <p>-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을 위해 『군사위원회 및 韓·美연합군 사령부 관련약정』의 개정안에 서명</p> <p>- 韩·美 연합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 합의 &lt;李炳台 장관 기자회견&gt;</p> <p>- 금년도 T/S훈련 실시여부는 美·北회담과 김정일의 권력장악 등 북한동향 등을 주시한 뒤 10월말 이전 최종 결정될 것임.</p>	<p>0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,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 談話</p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 * 수석대표회담</p> <p>0 클린턴 美대통령, 협상 성과 없으면 對北제재 추진 시사 * 기자회견</p> <p>-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美·北간 협상이 성공하기를 기대함.</p> <p>- 지난 6월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을 때 대북제재를 추진한 바 있음.</p> <p>0 폐리 美국방장관, 特別查察만이 유일한 방법 아니라고 발언 * 기자회견</p> <p>- 특별사찰만이 핵 투명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임.</p> <p>0 中, 지하 核실험 * 新疆 위구르자치구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 7	<p>0 金泳三 대통령, 美國의 對北 협상태도 언급 * 美 NYT紙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 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에 있어 순진하고 과도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음</li> <li>-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봉착해 있어 권력에서 축출될지 모름. 따라서 美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강화해야지 태도를 완화해서는 안됨.</li> <li>- 미국이 아이티나 쿠바,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탄압이 더욱 심각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음.</li> </ul> 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北, 대미협상과정에서 韓國 배제 기도 경고 * 제3차 東北亞 상주외신기자 초청 세미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수교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.</li> </ul>		<p>0 北, 한국기업 訪北 초청 재심 통보설 * 국내재계 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北韓은 최근 북경 고려민족산업발전 협회(회장 이성록)를 통해 기존의 초청장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국기업들에 통보</li> </ul> <p>0 日산케이신문, 러核기술자 비밀리 방북 보도 * 美정부소식통 인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가 있음.</li> </ul> <p>0 中, 北, 피침팬 참전 밀약説 * 北京 서방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과 북한은 지난 6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지역이 외세의 침공이 있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7	<p>0 外務部 대변인, 중국 核실험 관련 유감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주요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금지조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.</li> </ul> <p>0 金雲龍 대한올림픽위원장, 한국 개최 국제경기서 北 국기·국가 사용가능 언급 * 日교도통신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며, 북한이 국기와 國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.</li> </ul>		<p>을 경우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참전을 약속하는 비밀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음.</p>
10. 8	<p>0 金泳三 대통령, 北核 타결 안되면 안보리 회부 경고 *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회담에서 핵문제가 끝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수밖에 없음.</li> <li>-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수로 지원과 기술·자본 지원도 하겠지</li> </ul>	<p>0 中放, 韓昇洲 외무장관의 日本 UN 상임이사국 진출 조건부 지원 표명 비난 (論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족의 존엄에 대한 또하나의 용납못할 모독행위로서 추악한 친일 사대매국적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.</li> <li>- 우리를 반대하는 대결전쟁 책동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</li> </ul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 * 수석대표회담</p> <p>0 北, 한국기업 訪北 초청 재심통보 보도 부인</p> <p>- 北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는 10.8 국내기업에 기존 방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8	<p>만,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T/S훈련도 재개 할 수 밖에 없음.</p> <p>0 이종훈 한국전력 사장, 對北 장단기 전력공급방안 강구 발언 * 국회 국정감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시대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南北韓 인접 발전소간의 선로를 연결,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</li> <li>-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상호 전력용통을 위한 단일 전력계통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음.</li> </ul>	<p>받으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.</p> <p>0 북한 사회단체들,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 談話</p> <p>* 『조국전선』중앙위, 『직총』 중앙위, 『문예총』중앙위, 『범민련』북측본부 등</p>	<p>북 신청서의 재심 통보와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문서로 관계당국에 통보</p>
10. 9	<p>0 李榮德 국무총리, 南北 언어 이질화 극복 노력 강조 * 한글날 기념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는 통일시대에 대비, 날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현상을 극복키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.</li> </ul>	<p>0 勞動新聞,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 합의 관련 '의미없다'고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전지휘권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평시에는 의미가 없음.</li> <li>- 한국군이 군통수권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군사적 예속은 더욱 교묘하게 위장됐음.</li> </ul>	<p>0 美워싱턴 포스트紙, 한국 강경자세 美·北 협상 저해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의 대북 강경, 자세는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美·北 협상의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.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10		<p>0 노동신문, 당창건 49돐 즈음 社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혁통을 고수하는 것이 당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고 있음.</li> <li>- 金正日은 오래전부터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세기의 빛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임.</li> </ul> <p>0 『韓民戰』중앙위, 黨창건 49돐 즈음 김정일에 축하문</p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 * 대표단 전체회담</p> <p>0 폐리 美국방장관, 한반도문제 대응할 軍事力 충분 발언 * CNN-TV 회견</p> <p>- 美國은 중동에 군사력을 증강시켜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韓半島問題에 대해서도 예비군사력을 갖고 있음.</p> <p>0 北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아들, 中國 탈출설 * 중국소식통</p> <p>-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아들로 인민무력부 산하 특수부 대장인 軍장성 1명이 지난달 중국으로 탈출, 北韓 지도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려있음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0. 11	<p>0 大統領 주재 安保關係長官 조찬간담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北核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과 함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돼야 한다는 기준 韓·美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</li> <li>- 北核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과 함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돼야 한다는 기준 韩·美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</li> </ul> <p>0 金泳三 대통령, '核협상 서두를 필요없다'고 언급 * 美 CNN-TV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나는 美國이 북한핵협상 관련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한미간 합의를 지켜야 하며, 核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.</li> <li>- 金正日이 주석직에 취임하면 김정일을 상대할 것이며, 南北頂上會談 구상은 아직 유효함.</li> </ul> <p>0 金泳三 대통령, 韩·美간 신뢰 강조 * 美 WSJ紙 회견</p>	<p>0 단군릉 개건 준공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석 : 강성산, 이종옥, 김영남 최태복, 양형섭, 김기남, 김용순 김윤혁, 장 철, 박남기, 류미영 최정남(한총련), 권순휘(조총련), 문명자(재미교포) 등</li> </ul> <p>&lt; 강성산 준공사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늘 기념비적 창건물로 일떠선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혈통을 빛내여 주려는 金日成·金正日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임.</li> <li>-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따라 수령·당·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음.</li> <li>- 金日成·金正日은 우리 민족 사의 올바른 연원을 찾아주고 平壤을 민족의 성지로, 우리 조국을 5천년 역사국으로 만방에 빛내어 준 애국애족의 위대한 화신이며 우리 민족의 정기를 한몸에 체현한 걸출한 위인임.</li> </ul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 * 수석대표회담</p> <p>0 셀리 美국무부 副대변인, 美·北 회담 긍정타결 확신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회담이 긍정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것으로 확신함</li> <li>- 북한 핵문제에 관해 韩·美간 목표가 같고 지향하는 방향도 같음.</li> </ul> <p>0 유엔개발계획(UNDP) 南北韓 11개 협력사업 제의 * 외무부 국감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UNDP는 남북한 및 제3국 협력사업으로 북한내 외국인 투자 촉진, 에너지 효율화, 연료기술 협력 등 11개 사업 제시</li> </ul> <p>0 駐韓 유럽연합(EU) 상공회의소, 對北 투자조사단 파견 계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 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韓·美는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美·北회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.</li> </ul>		<p>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트위스트 회장, 나진·선봉지역관련 세미나에서 표명</li> </ul>
10. 12	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韩·美간 北核관련 관점 차이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KBS-TV 會見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과거·현재·미래의 核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, 미국은 NPT 유지라는 세계적 조망에서 문제를 보고 있음.</li> </ul> <p>0 李世基 민자당 의원, 판문점 관리권 UN司로부터 반환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회 외무통일위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종 남북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오갈 때 UN軍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잘못임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문제는 영토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야 함.</li> </ul>	<p>0 외교부 대변인, 日本의 核의혹 해결前 국교정상화 불가 입장 비난 記者會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현 일본 당국자들이 낡아 빠진 對조선 적대시정책 을 답습하면서 朝·日 국교정상화문제를 걸고 그무슨 압력을 가해보려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방임할 수 없음.</li> </ul> <p>0 일본 당국자들은 朝·日 국교정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핵문제를 떼어버리지 않는한 우리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.</p> <p>0 獨逸외무성 대표단, 북한 방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장 : 디테르 파펜푸스 외무성 전권대사</li> </ul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화와 팩스를 통해 협의</li> </ul> <p>0 무라야마 日총리, 北核 대처 위해 美 요청땐 日本기지 사용 협력 시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日중의원 예산위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은 憲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협력을 다할 것임.</li> </ul> <p>0 러 외무부 대변인, 理念 배제된 새로운 러·北관계 정립 모색 언급 (방송회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늘 모스크바와 평양이 사상적 구속이 없는 새로운 관계 건설을 내다보고 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3		<p>0 외교부 대변인, 제26차 韓·美 안보협의회의 개최 관련 비난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모의판을 공공연히 벌여놓은 것은 朝·美사이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됨.</li> <li>-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 수립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심상치 않은 군사적 소동을 벌이는 것은 결국 남조선을 영원히 군사적으로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</li> <li>-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긴 장이 완화되지 못하고 냉전의 대결구도가 제거되지 못하는 책임이 美군부내 보수세력과 남조선 괴뢰들에게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줌.</li> </ul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장 백남준, 金泳三 대통령 뉴욕 타임즈紙 회견 비난 記者會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北의 동족을 모해·암살하려는 반민족적 망발임.</li> </ul>	<p>0 美·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(제네바) * 실무자회담</p> <p>0 獨 민간경제사절단, 무역대표부 설치 및 나진·선봉지역 투자방안 협의차 訪北 * 한국무역협회 뒤셀도르프 지부 확인</p> <p>- 獨逸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, 뒤셀도르프 인근지역에 北韓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와 羅津·先鋒에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함.</p> <p>- 북한 경제정보센터 소장 라인박사가 이끄는 1진이 10. 10 출발한데 이어 2진도 10.13 平壤으로 떠났음.</p> <p>0 러 이타르 타스 통신, 平壤 주재 외국 공관, 직원들에 콜레라 방역실시 보도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3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을 망상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바라지 않고 朝·美회담에 훼방을 놓는 것임.</li> <li>- 우리에 대한 강경조치라는 것 은 사실상 남조선에도 이로울 것이 없음. 전쟁이 터지면 그 것은 北과 南에 다같이 엄청 난 후과를 가져다 줄 것임.</li> </ul> <p>0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의 아들 김용재, 국제인권기구들에 송 환 협조 便紙 발송 * UN 인권소위, 적십자국제위원회, 국제사면위 앞</p>	<p>0 사토 아시아개발은 행(ADB) 총재, 北 ADB 가입의사 타진 언급</p> <p>- 북한이 지난 10월 비공식 경로를 통 해 가입의사를 표 명해 왔음.</p>
10.14	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美·北회담 합의땐 수용 방침 언급 * 국회 국정감사</p> <p>- 북한이 IAEA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核투명성을 보장한다면 협상안을 수 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 임.</p> 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北핵문제 해결 5개 原則 제시 * 국회 국정감사</p>		<p>0 美·北 3단계 고위 급회담 2차회담 계 속 * 실무자회담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14	<p>① 北韓 핵개발 중지 · 동결</p> <p>② 韓半島 전쟁재발 예방과 대화 ·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</p> <p>③ 남북당사자간 해결방향으로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포함한 南北對話의 재개</p> <p>④ 北韓 核의 과거 · 현재 · 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, IAEA의 기준 · 판단을 중시</p> <p>⑤ 대북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한국이 중심</p> <p>0 北韓軍 하사 안명철(25), 제3국 경유 귀순 * 안기부 발표</p>		
10.15	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美 · 北협상 타결 南北關係개선 주요轉機 언급 *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입장</p> <p>- 남북한은 제네바 협상타결을 계기로 지난 2~3개월간 남북관계의 불편한 분위기를 셧고 지난 6월의 회담분위기로 되돌아 가기 바람.</p> <p>- 美北協商의 타결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전기가</p>		<p>0 美 · 北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담 계속 * 수석대표회담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5	<p>될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北韓의 새 권력체제가 안정속에서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, 북한의 새정권은 우리와 함께 南北和解協力시대를 열어나가야 함.</li> </ul>		
10.16	<p>① 金泳三 대통령, 核해결땐 전향적 對北정책추진 표명 * 중부매일신문 창간 기념 회견</p> <p>- 남북관계에 유연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임.</p> <p>-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對北정책을 추진할 것임.</p>	<p>① 金日成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 (금수산의사당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석 : 김정일, 오진우, 강성산 이종옥, 박성철, 김영주, 김병식 김영남, 최 광, 계응태, 전병호 한성룡, 김성애 外</li> </ul> <p>&lt; 黨비서 김기남 추모사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김정일 위임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, 모든 단위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.</li> <li>- 남조선 문민통치배들은 북남 관계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.</li> </ul>	<p>①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, 北 核능력 동 결에 최우선 목표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NBC-TV 회견</li> </ul> <p>- 美國은 북한이 核能力을 더이상 제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目標이며, 현재 진행중인 제네바 3단계 고위급회담이 타결될 경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임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6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연방제방식으로 90년 대에 기어히 조국을 통일할 것임.</li> 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총참모장 최광 추모사〉</p> <li>- 우리인민군대는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치고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김정일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데 대한 김일성의 유훈을 끝까지 충실했을 것임.</li> <li>- 우리혁명의 최고 뇌수이며 우리당의 최고영도자인 김정일을 결사옹위해야 하며, 여기에 김일성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는 근본열쇠가 있음.</li> </ul> <p>0 金日成 사망 100일 즈음 당·정 간부들 김일성 동상 화환 증정  * 참석 : 오진우, 강성산, 이종옥 박성철, 김영주, 김병식, 김영남 최광, 계웅태, 한성룡 外</p>	
10.17		<p>0 美·北 3단계 2차회의, 『기본 합의문』 타결 (제네바)  * 10.21字 참조</p>	<p>0 갈루치 美 국무차관 보, 기본합의문 타 결후 記者會見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7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번 合意文이 북한핵문제의 과거와 현재, 미래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긍정적인 것으로 評價함으로 본국정부측에 승인을 권고할 것임.</li> <li>- 합의문은 또한 美國은 물론 韓·日 등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이해와도 합치하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전적인 支持를 얻을 것으로 기대함.</li> <li>- 국제안보와 NPT체제를 위해서 긍정적 발전이라고 생각함.</li> <li>- 合意文은 IAEA가 북한의 과거 핵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方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음.</li> <li>0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, 北韓 2개 미신고시설 사찰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0.17			<p>계속 거부 지적 * UN 總會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난 7.8월중에 북 한측의 拒否로 중 단됐던, 신고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檢察이 再開돼 현재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음.</li> <li>- 그러나 두개의 未 申告施設에 대한 사찰은 여전히 거부되고 있음.</li> </ul> <p>0 무라야마 日총리, 북한 金正日체제 조기안정 희망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北韓의 상황이 새로운 지도체제의 조속한 확립과 더불어 안정되기바람</li> </ul>
10.18	0 金泳三 대통령, 南北關係 획기적 進展노력 천명 * 국회 시정연설	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, 美·北 3단계 2차회담후 記者會見 (제네바 북한대표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는 앞으로 한미간 긴밀한 共助體制를 유지하고, 북한핵문제에 대한 美·北간 합의가 충실히</li> <li>- 이번에 우리는 朝·美사이의 불신 해소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를 해결하는데 기본을 두고 회담을 진행</li> </ul> <p>0 클린턴 美대통령, 美·北 합의 전면수용 발표 (특별성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 합의로 한반도에서의 核화산에 따른 위협의 종식에 크게 기여할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8	<p>이행되는 것은 물론 南北關係에도 획기적인 進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·북 합의를 통해 북한은 모든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韓半島 安定·平和維持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.</li> </ul> <p>○ 제16차 통일관계장관회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 평가</li> <li>- 북한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</li> <li>- '95년도 통일과정 관리계획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, 추진키로 결정</li> </ul> <p>○ 韓昇洲 외무장관, 美·北 합의 한반도 平和 기초 마련 평가</p>	<p>하였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에 대한 외부의 核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른바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였음.</li> <li>- 혹연로체계가 경수로체계로 교체되면 이른바 核의혹이라는 것도 말끔히 없어지게 될 것임.</li> </ul> <p>○ 北韓적십자회 창립 48돐 기념 보고회 (평양 국제문화회관)</p> <p>&lt; 위원장 대리 이성호 報告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北南 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반대화적 행위때문임.</li> <li>- 남조선 적십자사가 분열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·함세환·김영태 노인들을 北</li> </ul>	<p>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北韓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.</li> <li>- 갈루치 대사에게 10.21 제네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지시했음.</li> </ul> <p>○ 고노 日외상, 美·北 합의 환영</p> <p>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환영하며 美國의 끈기있는 협상과정을 높이 평가함.</li> <li>- 합의내용 대부분 日本이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,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은 지금부터임.</li> </ul> <p>○ 이가라시 日관방장관, 北核 타결 환영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화를 통해 해결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18	<p>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는 금번 합의가 북한 核問題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安定과 平和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</li> <li>-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南北基本合意書를 실천에 옮겨,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임.</li> <li>- 특히 북한에 대한 經水爐 지원 사업에 있어 우리가 中心的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.</li> </ul> <p>0 金始中 과기처장관, 經水爐 우리 기술로 90%건설 가능 언급</p> <p>* 국회 국정감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표준형 經水爐를 支援 경우 계통설계는 한국 원자력연구소, 터빈발전기는 한국중공업, 안전성심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원이 맡을 것이며, 전체 원전건설기술의 90%정도를 우리技術로 지원할 수 있음.</li> </ul>	<p>送해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조선 적십자사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적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남조선 당국에 촉구해야 할 것임.</li> </ul> <p>0 노동신문, 訪北 최정남에 대한 의법조치 방침 비난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일당은 최정남 학생의 의로운 訪北활동을 범죄시함으로써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패덕한으로서의 야만적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음</li> </ul>	<p>된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거 핵의혹 검증 등 일본이 요구한 사항이 합의에 들어있는 것으로 봄.</li> </ul> <p>0 키드 IAEA 대변인, 북한에 사찰단 추가 파견 준비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AEA는 약 15명의 핵사찰단 중 일부를 平壤에 추가로 파견할 수 있을 것임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19	<p>○ 金泳三 대통령, 美·北합의 관련 적극적 국민설득 언급  * 샘년 美상원 군사위원회 접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과 북한의 회담 합의문에 대해 우리 내부의 일부계층에 불만이 있음.</li> <li>- 政府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회담 합의문이 성실히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임.</li> </ul> <p>○ 李敏燦 문화체육부 장관, '95 민속예술경연대회 南北 공동개최 제의  *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 개막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복 50주년을 맞는 9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해 갖을 것을 제의함.</li> </ul> <p>○ 박범진 민자당 대변인, 北 핵타결 환영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빚어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기본목표가 이뤄진 것으로 봄.</li> </ul>	<p>○ 『祖平統』서기국, 訪北 최정남 위법조치 방침 비난 報道</p>	<p>○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, 美·北·대외비 각서·체결 확인  * 美·北 회담결과 브리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 기본합의서에는 對外秘 각서가 첨부돼 있으며 공개 않기로 약속 돼 있음.</li> </ul> <p>○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, 6개월내 연락 사무소 설치 시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의문에는 美·北 연락사무소 개설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6개월내에는 상호 설치하게 될 것임.</li> </ul> <p>○ 이가라시 日관방장 관, 對北수교협상 재개 용의 공식표명 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 정부는 예전부터 북한의 핵개발문제 해결을 日·北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19	<p>0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, 北核 타결 환영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반도에서 핵위기가 사라지고 전쟁위협이 없도록 한 회담타결을 환영함.</li> </ul>		<p>생각하지 않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北韓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음.</li> </ul>
10.20	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北韓 인권문제 美·北수교 전제 조건 아니라고 발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연합통신 회견</li> <li>- 北韓 인권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美·北수교의 전제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음.</li> <li>- 그러나 美國은 앞으로 對北수교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으로 봄.</li> </ul>	<p>0 외교부 대변인, 美·北『기본 합의문』 채택 관련 報道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최고사령관 金正日은 朝·美회담 우리측 단장에게 기본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지시를 주었음.</li> <li>- 기본합의문은 흑연로체계의 경수로체계로의 교체문제, 朝·美 사이의 정치·경제관계 정상화문제, 조선반도의 비핵화, 평화와 안전보장문제, 핵전파방지체계 강화문제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해 朝·美 쌍</li> </ul>	<p>0 美공화당 중진의원 4명, 클린턴 대통령에게 美·北합의 재협상 촉구 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머코스키, 헬름스 등 상원의원들은 미·북합의내용을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촉구</li> </ul> <p>0 클린턴 美대통령, 김정일에게 경수로 제공 및 대체에너지 보장 書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내용 10.22字 참조</li> </ul> <p>0 셀리 美국무부 副대변인, 對北제공 重油 첫 공급분 美國 부담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초 3개월내 북한에 제공되는 대체에너지용 重油는 미국이 부담하겠지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20		<p>방이 해야할 바에 대하여 공약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합의문에는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내놓은 주동적 발기들이 충분하고 만족하게 반영되어 있음.</li> <li>- 기본합의문이 이행되면 朝·美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임.</li> </ul> <p>0 최정남(韓總聯 대표) 환영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(청년중앙회관) * 참석 : 최용해, 박관오, 흥일천</p> <p>0 平放, '수령의 후계자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추대되는 것'이라고 주장</p>	<p>만, 추가공급분은 對北 경수로지원 컨소시엄이 재정부 담을 맡게될 것임.</p> <p>0 블릭스 IAEA 사무총장, 美·北 합의 미흡 평가</p> <p>- 美·北합의가 IAEA에게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파악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접근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이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음 .</p>
10.21	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대체 에너지 비용 부부담 표명 * 국회 외무통일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체 에너지 제공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.</li> </ul>	<p>0 美·北 3단계회담 종료, 『기본 합의문』 서명·발표 (제네바) * 10.17 타결, 10.21 서명</p> <p>&lt; 朝·美 기본합의문 (Agreed Framework) 要旨 &gt;</p> <p>1. 쌍방은 朝鮮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</p>	<p>0 클린턴 美대통령, 美·北 합의 관련 金泳三 대통령에게 구두 메시지 * 폐리 美국방장관 통해 전달</p> <p>-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에서 합의된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앞으로 경수로 지원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대체에너지 제공엔 일절 참여할 계획이 없음.</li>   <li>① 韓·美 국방장관, '94 T/S 훈련 중단 합의</li>   <li>- 美·北 핵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T/S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</li> </ul>	<p>들로 교체하기 위해 협조함.</p> <p>1) 美國은 2003년까지 총 200 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함.</p> <p>2) 美國은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동결에 따르는 에너르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</p> <p>대용 에너르기는 열 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함.</p> <p>3) 朝鮮은 흑연감속로와 연관 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함.</p> <p>경수로 대상 건설기간 朝·美는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朝鮮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협조함.</p> <p>4) 朝·美는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갈래의 專門家協商을 진행함.</p>	<p>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호히 응징할 것임.</p> <p>① 클린턴 美대통령, 對北 중유제공 비용 대부분 韓國 부담 언급</p> <p>* 기자회견</p> <p>- 日本과 다른 나라들의 지원아래 한 국은 북한의 핵에너지 상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對北 연료 공급 경비의 대부분을 떠맡을 것임.</p> <p>① 고노 日외상, 조건 없는 對北 수교협상 재개 용의 표명</p> <p>* 日중의원 안보위</p> <p>- 북한과의 회담을 재개하는데 전제조건을 달 필요를 느끼지 않음.</p> <p>- 상대방의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대화하고 싶음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0. 21		<p>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 에너르기와 관련한 연관문제들과 흑연감속로 계획을 경수로 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연관문제들을 토의함.</p> <p>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함.</p> <p>2.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감</p> <p>1) 쌍방은 합의문 서명후 3개 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장벽을 완화함.</p> <p>2)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영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함.</p> <p>3) 朝·美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킴.</p> <p>3.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,</p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21		<p>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.</p> <p>1) 美國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朝鮮에 제공함.</p> <p>2) 朝鮮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北南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.</p> <p>3) 朝鮮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北南對話を 진행할 것임.</p> <p>4.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.</p> <p>1) 朝鮮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 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것임.</p> <p>2) 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朝·IAEA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됨.</p> <p>3)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</p>	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21		<p>분이 실현된 다음, 그리고 주요 核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朝鮮은 IAEA 와 핵물질 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와의 담보협정(회람통보 403)을 완전히 이행함.</p> <p>※ 대외비 각서(Confidential Minute) 별도 합의</p> <p>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, 『기본 합의문』 서명후 記者會見 (제네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의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역사적 문건으로서 朝·美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반영되어 있음.</li> <li>- 우리는 기본합의문에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주동적 발기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.</li> <li>- 우리가 이번에 핵활동의 현재</li> </ul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21		<p>와 미래를 동결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핵개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되었을 때, 그리고 朝· 美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가서 우리의 核투명성 이 보장될 것임.</li> <li>- 우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김정일을 조선의 최고지도자로 우리 당과 인민 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존 칭하고 있음.</li> </ul> <p>○ 北韓 대표, UN총회 제49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연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조선 당국자들과 주변의 일 부 나라들이 朝·美 기본합의 문을 실천에옮기는데 장애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 야 하며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들 자신에게도 좋을것이 없음</li> <li>- 군사정전위에서 정전협정 체 약일방인 朝·中측 대표단이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개설됨으로써 조선 반도에서 평화와 안전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 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.</li> </ul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22		<p>0 中放, 클린턴 美대통령의 경수로 제공 및 대체에너지 보장 · 담보서한' (10.20字) 공개 * 金正日을 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'로 호칭</p> <p>- 朝鮮에 제공될 경수로 발전소 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,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에 제공될 대용에너르기 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당신께 확인하는 바임.</p> <p>0 『韓民戰』 중앙위 선전국, 美·北 합의에 대한 남한내 반응 관련 '공보문' 발표</p> <p>0 『朝總聯』 의장 한덕수, 일본 귀환 즈음 金正日에게 便紙와 歌辭 진정</p> <p>- 이제 자기초소에 돌아가면 저의 생을 총련을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충효일심으로 반들어 나가는 충성의 부대로 튼튼히 꾸리는데 기꺼이 바치겠음.</p> <p>0 조선인민군 친선참관단,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* 단장 : 오용방 (대장)</p>	<p>0 사이토 日외무차관, 日·北 수교회담 조기재개 가능성 시사 * NHK 회견</p> <p>- 이번 美·北 기본 합의는 日·北간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됐으며 그렇게 멀지않은 장래에 국교정상화회담이 재개될 가능성 이 충분히 있음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23	<p>0 국군포로 趙昌浩, 북한 탈출 귀환            - 6.25 전쟁당시 중공군에 포로된 당시 국군 포병대 소속 소위 趙昌浩씨(64) 가 북한을 탈출, 귀환</p>	<p>0 『朝總聯』의장 한덕수, 日本 귀환            * 전송 : 박성철, 김용순</p>	<p>0 日 연립여당, 북한에 여당대표단 파견 타진            * 구보 와타루 日사 회당 서기장 확인            - 자민당으로부터 연립여당 3당의 관계자들 북한에 파견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, 사회당은 이같은 제의를 북한측에 전달했음.</p>
10.24		<p>0 中放,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'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후과'라고 비난 論評</p>	<p>0 샬리카시빌리 美합 참의장, 내년 T/S훈련 실시 희망 표명            * 美星條紙 보도            - 북한의 막강한 재래전 수행능력이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'95.3 예정인 T/S훈련은 열리길 바람.            0 日, 아시아 각국 및 안보리 상임국에 對北경수로 지원 참여 요청 방침            * 산케이신문 보도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25		<p>0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,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·함세환·김영태 송환 요구 韓赤총재에게 便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감스럽게도 귀족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아무 련 대책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례하게도 회신조차 보내지 않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.</li> <li>- 그들의 가공한 정상을 외면하고 오늘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은 貴적십자사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당국의 압력과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음.</li> <li>- 貴적십자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을 무조건 시급히 送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.</li> </ul> <p>0 美·北 3단계회담 북측대표단, 平壤 귀환</p> <p>0 오진우, 신병치료차 파리 방문 (10. 25~12. 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파리 라에넥 병원에서 폐암 종합검진</li> </ul>	<p>0 IAEA, 美·北합의서 내용 검토 비공개 會議 (제네바)</p> <p>0 갈루치 美국무부 核 대사, 남북대화 장기적 추진 언급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간 연락사무소 교환을 위한 대화가 조만간 시작 될 것이지만 南北對話는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.</li> </ul> <p>0 갈루치 美국무부 核 대사, 對北무역제재 완화 행정명령으로 가능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對北 무역제재 완화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함</li> </ul> <p>- 북한에 소규모의 重油를 제공하는데 새로이 의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에너지부의 재량권으로 가능함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25		<p>0 訪中 조선인민군 친선참관단, 중국 국방부장 지호전 예방 * 단장 : 오용방(대장)</p> <p>0 黨중앙위 · 중앙인민위 · 정무원 중국군 참전 44돌 즈음 우의탑 에 화환 진정 * 참석 : 최 광, 장 철, 지재룡 조규일, 이종산, 교종회</p> <p>0 다케무라 日대장상, 北경수로 비용분담 유럽에 요청 방침 언급 * 日중의원 재무위</p> <p>- 北경수로 건설비 일부를 분담토록 유럽에 요구할것임</p> <p>0 러 원자력부 고위관 리, 北경수로 부지 신포 · 태천 예상</p> <p>- '89년 북한이 舊소 련의 도움을 받아 원전부지로 선정해 발표했던 신포 또 는 태천 중 한곳으 로 결정될 것이 확 실함.</p>	<p>0 무라야마 日총리, 조건없이 北과 수교 협상 희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임.</li> <li>- 이번 내각에서 국교정상화를 하고 싶음.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26		<p>0 平放, '3단계 통일론' 비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영구화하자는 것으로써 용납될 수 없는 망발임.</li> <li>- 1국가 1체제에 의한 통일은 공화국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제도통일을 꿈꾸고 있음.</li> </ul> <p>0 『韓民戰』 중앙위, 美·北·기 본합의문·지지 聲明</p>	<p>0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, 폐연료봉 처리 문제 시급 언급 * 특별브리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용후 연료봉의 저장문제가 시급하며,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회담을 열어야 할 것임.</li> </ul> <p>0 日 외무성, 대북경 수로 지원 EU 참여 전제 부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럽연합(EU)의 참여가 일본의 對北 경수로 지원의 전제조건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.</li> </ul> <p>0 블릭스 IAEA 사무총장, 北, 특별사찰 거부입장 불변 언급 * 英하원 외교위 증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·북합의와 관계 없이 북한은 핵의 혹 2개시설에 대한 사찰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0.27	<p>0 金泳三 대통령, '南北이 화합한 한민족시대 건설' 강조        * 제7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치사</p> <p>- 東西가 단결하고 南北이 화합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함.</p> 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對北 경수로 지원 국제컨소시엄 예산 45억弗 전망        * 기자회견(브뤼셀)</p> <p>- 국제컨소시엄 '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(KEPO)'의 전체예산은 약 45억달러 가 될 것임.</p> <p>- 45억달러에는 △경수로 건설비 35억달러 △대체 에너지 비용 3억달러 △ 폐연료봉 처리 및 이전비용 1억달러 △흑연감속로 2기 등 핵시설 해체비용 5억달러 △기타 컨소시엄 운영비 1억달러 등이 포함됨.</p> <p>- 韓國은 전체예산중 경수로 건설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게 될 것임.</p>	<p>0 中央通信,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軍停委 철수 보도</p> <p>- 군사정전위원회에 와있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조선에서 철수하기에 앞서 10.27 조선인민군 板門店 대표부를 작별 방문했음.</p> <p>0 외교부 대변인, 日통신상의 태평양전쟁 침략부인 妄言 비난 記者會見</p> <p>- 日本의 군국주의적 체질의 반영으로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줌.</p> <p>-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주제넘게 UN 상임이사국이 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함.</p> <p>0 김형직 동상 제막식 (평북 삭주군)        * 참석 : 박성철, 최영립, 김기남 장 철, 강석승, 김학봉, 염재만</p> <p>0 軍停委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환송 군인집회 (북한군 판문점대표부)</p>	<p>0 美, 법령에 주한미 군철수 日本과 긴밀 협의 명시        * 『註釋 美법령집』 타이틀 22권의 색션 2428a '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회 선언; 하원의장 및 의회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보고'</p> <p>* '77.8.17 의회통과</p> <p>- 美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점진·단계적으로 美지상군을 빼내는 여하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아시아,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익,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이익들과 합치되도록 해야 함.</p> <p>0 美, UN 안보리에 美·北합의 지지 요청        - 올브라이트 UN주재 美대사는 안보리 15개국 대표에 美·北고위급회담 합의 지지 聲明 초안을 회람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27			<p>0 唐家璇 中외교부 부부장, 對北경수로 컨소시엄 참여 시사 * 기자회견</p> <p>- 중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검토중이며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 부문의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임.</p> <p>- 중국은 美·北 제네바회담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임.</p> <p>0 카라신 러 외무부 대변인, 美·北합의 문제 제기 * 공식 논평</p> <p>- 러시아는 회담결과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28	<p>0 李榮德 국무총리, 訪韓 핀란드 총리에게 對김평일 메시지 전달 요청 * 에스코 아호 핀란드 총리 면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의 駐핀란드 대사인 김평일에게 우리의 확고한 평화통일의지를 전달 해주기 바람.</li> <li>- 核투명성이 확보되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전면 확대,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.</li> </ul> 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오진우 파리 방문시 金正日 건강검진 의뢰 가능성 언급 * 기자간담회(파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吳振宇를 동행한 6명의 수행원은 너무 많은 숫자로 이들의 목적 가운데는 金正日의 진찰기록과 사진을 가져와 간접적으로 검진을 받는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 眇.</li> </ul> <p>0 北韓 전직 고위인사들, '북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서울대회' 개최</p>	<p>0 金正日, 전체 인민들에게 '감사문' 전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령님의 서거에 표시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애도의 정과 충성의 결의는 수령·당·대중이 하나의 대가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힘있는 과시로 됨</li> <li>- 나는 金日成 동지의 서거에 그처럼 심심한 애도의 정을 표시한 우리의 노동계급과 협동농민, 인민군 장병들과 지식인,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,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림.</li> <li>- 우리 당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.</li> <li>- 나는 앞으로도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나갈 것임.</li> </ul>	<p>0 갈루치 美국무부 核 담당대사, 美·北 전문가회담 4개분과 개최 방침 표명 * 駐美한국대사관 오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네바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전문가회담을 △폐연료봉 처리 △경수로 지원 △대체에너지 지원 △연락사무소 개설 등 4개분과로 구분 개최할 방침임.</li> </ul> <p>0 블릭스 IAEA 사무총장, 특별사찰 수용 전엔 北신고내용 신뢰못한다고 언급 * 기자회견 (뉴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별사찰이 5년간 연기된 것은 핵안전협정 이행을 맡고 있는 IAEA측에는 긍정적인것이 아님</li> <li>-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핵물질보유에 관한 북한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.</li> </ul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2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反北단체인 조선민주통일 구국전선(상임의장 朴甲東)과 북한 민주화 촉진 협의회(회장 李淵吉)는 북한 전직고위인사 등 4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大會를 열고 金正日 퇴진과 정치범 석방등을 촉구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北 고위간부 아들, 러시아에서 마약밀매 관련 징역형説 * 교도통신 보도</li> <li>- 러 극동지역에서 지난 6월경 해로인 8kg이상을 밀매하려다 체포된 북한인 2명이 10.27 징역형 6-7년을 선고 받았으며, 이중 1명은 北韓 고위간부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음.</li> </ul>
10. 29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中放, 『독수리-94』훈련 실시 관련 T/S훈련 중지는 기만이었다'고 비난</li> <li>- 마지못해 朝·美 합의문을 받았들이고 T/S-94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와 맞먹는 독수리-94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음으로써 그것이 위선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음.</li> <li>0 『조국전선』중앙위,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·함세환·김영태 송환요구 聲明</li> <li>0 金正日, 단군릉 시찰 * 수행 : 최태복, 김기남, 김국태</li> </ul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30		<p>0 平放, 6.25 포로 조창호 소위 귀환 관련 북한군에 투항 귀순 한 자라고 주장</p> <p>- 그는 전투중에 부하 사병들을 데리고 우리 인민군대에 투항 귀순해온 인물임.</p>	<p>0 北, 한국 기업 평양 사무소 허용 표명說 * 세계일보 보도</p> <p>- 북한의 對南경협 창구인 고려민족발 전협회 베이징 사 무소측은 최근 한 국기업들에 平壤사 무소 설치도 가능 하다는 반응을 보 였음.</p> <p>0 北-獨, 무역사무소 기능 합작회사 설치 합의說 * KOTRA 뒤셀도로프 지부</p> <p>- 최근 訪北한 독일 경제협력사절단과 북한이 합작회사 형태의 무역사무소 를 '94. 4~5월중 설립키로 합의, 意向書에 서명했음</p>
10. 31	<p>0 金泳三 대통령, 李鵬 중국 총리와 회담</p> <p>- 美·北 합의의 이행을 위 해 양국이 긴밀한 협조관 계를 유지한다는데 합의</p>		<p>0 沈國放 中외교부 대 변인, 한반도 平和 體制 전환 주장 * 기자회견</p> <p>- 현재 한반도에 존 재하는 停戰체제는</p>

■ 10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0. 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</li> <li>- 金 대통령은 “남북한이 공존공영해야 바른 통일 가능함. 北韓이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共存共榮의 정신에 호응해 온다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언급</li> <li>○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‘核-經協 연계’ 단계적 완화 검토 언급 * 국회 본회의 답변</li> <li>- 제네바 美·北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핵과 경협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 하며, 해당측들의 협상·대화로 그러한 체제를 찾아가야 함.</li> <li>- 평화체제를 세우기 전에는 정전협정을 인정해야 함.</li> <li>○ 江澤民 중국 주석, 北韓 조국전선 중앙위 대표단(단장 정두환) 접견</li> <li>- 중국 인민은 조선인민이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김일성의 생전의 위업을 끝까지 관철하리라고 믿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	<p>0 李榮德 국무총리, 李鵬 중국 총리에게 '흡수통일 不願 입장 北 전달' 요청 * 韓·中 총리회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가 절대로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반드시 전해 주기 바람.</li> </ul> <p>0 李榮德 국무총리, 南北정상회담 北韓 새 체제 출범 후 협의 방침 언급 * 국회 본회의 답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출범하면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갈 것임.</li> </ul> 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기본합의서에 바탕한 남북대화 추진 언급 * 국회 본회의 답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대화는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핵통제공동위, 경제공동위, 화해공동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함.</li> <li>- 제네바 美·北합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의 또 다른 시작에</li> </ul>	<p>0 외교부 대변인, 美·北 기본합의문 이행조치 착수 발표 (記者會見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이미 朝·美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음.</li> </ul> <p>- 정무원은 11월초부터 5만kw, 20만kw 흑연감속로 등의 건설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금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부문에서는 5mw 실험용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준비해 놓았던 새 연료봉들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음.</li> </ul> <p>- 방사화학실험실을 비롯한 연관시설들의 동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이미 朝·美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.</li> </ul> <p>0 金正日, '사회주의는 과학이다' 題下 논문 발표 * 노동신문 掲載</p>	<p>0 갈루치 美국무부 핵 담당대사, DMZ 부근 병력철수 선행돼야 對北 대사급관계 수립 언급 * 日교도통신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北 대사급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DMZ 부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북한 병력의 철수가 선행돼야함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DMZ 부근에 배치된 북한 병력과 중무기의 철수를 위해 남북한이 신뢰조성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임.</li> </ul> <p>0 갈루치 美국무부 핵 담당대사, 한국형 경수로 北제공 언급 * MBC방송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한국형이 될 것임.</li> </ul> <p>0 沈國放 中외교부 대변인, 평화체제 전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	<p>불과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의 경수로 지원은 단순히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라 21세기 한반도 에너지 수급을 위한 민족공동체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함.</li> </ul> <p>0 『독수리 -'94』 韓·美 합동군사훈련 실시 (11.1~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람위주의 사회주의,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임.</li> <li>-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실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임.</li> <li>-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에 기초하고 있기에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갖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 됨.</li> <li>-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끊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함.</li> </ul> <p>0 『職總』 중앙위, 비전향 출소자 송환 촉구 聲明</p>	<p>한에 韓國의 역할 필요 언급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한국도 적당한 역할을 해야 함.</li> <li>- 한국이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韓國의 역할이 필요함.</li> </ul>
		<p>0 『朝總聯』 충성의 결의 모임, 김정일에 대한 '맹세문' 채택 (도쿄 조선회관)</p> <p>* 참석 : 한덕수, 이진규, 허종만 박재로 外</p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 2	<p>0 金泳三 대통령, 李鵬 중국 총리와 조찬회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합의가 성실히 준수되도록 협조할 것을 재확인</li> <li>- UN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韓半島에서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도록 공동노력키로 합의</li> </ul> <p>0 洪在馨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, 민간참여 南北經協협의체 신설검토 언급 * 국회 본회의 답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經協추진과정에서 민간적인 협의기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南北경제 협력협의체 신설을 검토 하겠음.</li> </ul> <p>0 韓·中외무장관, 南北對話 긴요 합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 核합의의 이행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데 합의</li> </ul>	<p>0 『祖平統』대변인, 독수리-94 훈련 실시 비난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 기본합의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감행되는데 그 엄중성이 있으며, 중지키로 한 T/S 합동군사연습과 간판만 바꾼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이 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음.</li> <li>- 朝·美 기본합의문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이행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매우 심상치 않은 도발임.</li> <li>- 남조선 당국자들이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北南사이의 화해와 협력,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줌.</li> </ul> <p>0 金正日, 청류다리 시찰 * 수행 : 계응태, 한성룡, 최태복, 김기남, 김국태</p> <p>0 광주학생의거 65돌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보고회 (사로청 중앙회관) * 참석 : 염태준, 백남준, 이 찬, 박명철, 김영구</p>	<p>0 로드 美국무차관보, 한반도 美군사력 현수준유지 언급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과 북한간의 핵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韓半島에 현 수준의 美 군사력이 계속 유지될 것임.</li> </ul> <p>0 駐태국 북한대사 이 도섭, 남북대화 앞서 南韓 사과 주장 * 로이터통신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측이 金日成 사망후 취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는 남북회담 재개가 어려울것임</li> </ul> <p>0 北, 羅津·先鋒지구 건설에 軍병력 14만 명 투입説 * 세계일보 보도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3	<p>0 李榮德 국무총리, '남북 교역은 민족내부거래' 임을 闡明 방침 * 국회 본회의 답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계무역기구(WTO) 비준 협정서 기탁시 南北韓 거래가 민족내부 거래임을 천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임.</li> </ul> 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에너지 공동개발 '南北협의체' 구성 필요 언급 * 영광 원자로 3, 4호기 건설현장 시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對北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남북한의 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,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</li> </ul>	<p>0 『汎青學聯』 남북대표, '북남 청년학생 공동결의문' 발표 * 북측본부 의장 허창조 · 한총련대표 최정남 공동 記者會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족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동족간 긴장과 대결을 획책하는 모든 처사와 법적 제도적장치에 대한 투쟁을 펼칠 것임.</li> <li>-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.</li> <li>- 자주적 평화통일의 국면으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임.</li> <li>-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주체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.</li> </ul>	<p>0 美·北 실무접촉 (뉴욕) * 전문가회담 일정문제를 포함한 '기본합의문' 이행방안 협의</p> <p>0 마누엘 美 국방부 대변인, 駐韓美軍 감축説 부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駐韓美軍의 감축은 美·北협상의 일부가 아니며, 폐리 국방장관은 휴전선에 1백만 北韓병력이 집결해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駐韓美軍을 감축하지 않을 것임.</li> </ul>
11. 4	<p>0 李榮德 국무총리, 北 무력 적화노선 불포기 언급 *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</li> </ul>	<p>0 외교부 대변인, UN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철회 결의안 지지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것은 쿠바인민의 승리일 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됨.</li> </ul>	<p>0 UN안보리, 美·北 합의 지지 '의장성명' 채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보유지에 긍정적인 조치로서 만족함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4	<p>있음.</p> <p>○ 韓昇洲 외무부장관, 南北韓 평화협정 체결후 관련국 보장 방안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들이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.</li> <li>- 현재의 정전협정에는 UN과 중국이 관여하고 있음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 검증을 위해 IAEA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.</li> <li>- 북한의 핵활동 동결 감시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IAEA에 요청함.</li> <li>-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동선언 이행 결정을 환영함.</li> </ul> <p>○ 李鵬 중국 총리, 停戰체제의 平和체제 전환 언급 * 離韓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화하는 과정에는 南北韓 쌍방을 포함한 관련국이 모두 참여해야 함.</li> <li>- 美·北合意書 이행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의 中國 참여문제는 중국실정에</li> </ul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 4			<p>맞는 방법으로 검토할 것임.</p> <p>① 로드 美국무부 東亞 · 太 담당 차관보, 평화체제 전환에 南北 합의 우선 강조 * 美공보원 주최 토론회</p> <p>- 미국은 정전협정의 전환문제에 대한 南北韓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따를 것임.</p> <p>② 美 核전문가, 北 지원 경수로 플루토늄 대량생산 가능 주장 * 앤버트 워홀스테터 · 그레고리 존스, WSJ紙 기고문</p> <p>- 경수로가 핵연료의 단위 W당 플루토늄 생산량은 천연우라늄 원자로 보다 적지만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총량은 더 많을 것임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 5	<p>0 외무부 대변인, UN 안보리 의장성명 환영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는 적절한 조치로 평 가하며 환영함.</li> <li>- 특히 IAEA의 핵동결 감시 활동에 대하여 안보리가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 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한 조치라고 평가함.</li> <li>- 북한이 美·北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.</li> </ul> <p>0 北韓 별목공동 3명 귀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베리아 별목공 최호영 · 김호씨와 독립국가연합 내 북한식당 요리사 박명남씨 등 3명 귀순</li> </ul>	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'남매 간첩 단' 사건 관련 규탄 보도</p> <p>0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, 軍停委 철수 중국군 대표단과 담화</p>	
11. 6		<p>0 平放, 李鵬 중국총리 방한시 李榮德 국무총리의 '흡수통일 不願 입장 北에 전달' 요청 비난 논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방인들을 붙잡고 늘어져서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北에 전달해달라느니 하고 청탁놀음을 벌인 것은 가소롭고 분수없는 추태임.</li> </ul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6		<p>0 金正日, 美·北 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위해 연회 마련 (목란관)</p> <p>* 참석 : 김영남, 최 광, 계웅태 전병호, 한성룡, 최태복, 최영림 홍성남, 양형섭, 백학림, 김광진 김기남, 김국태, 김중린, 김용순 강석주</p> <p>0 「社勞青」중앙위, 비전향 출소자 송환 촉구 聲明</p>	
11. 7	<p>0 金泳三 대통령, '核·經協 연계·해제 방침 표명 *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동안 남북관계는 핵문제에 얹매여 여러가지 어려운 국면을 겪어왔으나 남북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, 進展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음.</li> <li>- 南과 北이 상부상조의 정신아래 당국간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</li> <li>-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訪北 협용 등南北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.</li> </ul>	<p>0 외교부 대변인, 美·北전문가 회담 개최 일정 발표 (報道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朝·美는 기본합의문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협상들을 개최하기 위하여 일련의 실무 접촉을 뉴욕에서 진행하였음.</li> <li>-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전문가협상을 평양에서 11. 12~19 진행하며, 경수로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문가협상은 베이징에서 11. 30 시작하며,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전문가협상은 12. 6 ~10 워싱턴에서 하기로 합의 하였음.</li> </ul> <p>0 黨비서 김용순, 日·北 수교협상 관련 90년·3黨 공동선언·준수 강조</p> <p>* 日TBS-TV 회견</p>	<p>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, 北 인권개선 돼야 대사급 修交 방침 언급 * 조선일보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사급 수교관계를 위해선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야 하며, 미사일 확산·인권·테러 등 다른 광범위한 문제들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.</li> <li>-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 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복 5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'민족발전공동계획'의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게 되기를 희망함.</li> <li>- 북한이 APEC 등 지역공동체와 국제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며, 참여를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정부 및 정계 일각에서는 3당 공동선언의 정신을 외면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인사들이 있으나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주장을 용납하지 않음.</li> </ul> <p>0 『女盟』중앙위, 비전향 출소자 송환 촉구 聲明</p>	<p>0 日 연립여당, 대표단 北韓 방문 신중 추진 방침 결정 * 연립 3당 회의</p> <p>- 북한이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'90년 3黨 공동선언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, 신중을 기하기로 결정</p> <p>0 카터 前 美대통령, 김정일로부터 訪北 초청 사실 언급 * 日아시아신문 회견</p> <p>- 金正日로부터 '서로 사정이 좋은 시기에' 북한을 방문 토록 요청받았음.</p> <p>0 北, 최근 현대·삼성 등 한국기업인에 訪北 초청장 재발급 * 財界소식통</p> <p>- 북한은 최근 북경 주재 고려민족산업 발전협회를 통해 한국기업인들에게 訪北 초청장을 재발급했음.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8	<p>0 정부, 南北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*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 심의·의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인 訪北, 북한 경제인 초청 협용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 추진</li> <li>- 기술자 訪北, 시설재 반출 협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</li> <li>-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 협용 및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협용</li> <li>-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시범적 고용 및 제3국 합작 및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 협용</li> <li>-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南北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,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 마련</li> </ul>	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남한 군사 도발 주장 규탄 보도 발표</p> <p>0 외교부 대변인,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비난 (記者會見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은 과거청산을 똑똑히 하지 않고서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.</li> </ul>	<p>0 레이니 駐韓美대사, 남북대화 이행돼야 연락사무소 개설 방침 언급  * 한국편집인협회 주최 조찬대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대화문제가 이행되지 않고서는 연락사무소 개설등 美·北관계개선은 가시화되지 않을 것임.</li> <li>- 美·北 국교정상화는 절제되고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이나, 그전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돼야 함.</li> </ul>
11. 9	<p>0 金泳三 대통령, 임기중 목표는 '南北공동체 실현'이라고 언급  * 호주 『더 오스트렐리언』紙 회견</p>	<p>0 金正日,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 및 금릉 2동굴 건설 命令 하달  * 軍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</p>	<p>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, 北 합의이행 따라 경제제재 단계 완화 방침 언급  * 기자회견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잔여 임기중 목표는 남북 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임.</li> <li>- 이것이 이룩되면 금세기가 가기전 南北韓을 완전히 통일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임.</li> <li>- 이러한 구상은 남북한이 단일한 경제·사회공동체가 되게 함으로써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한 것임.</li> </ul> <p>0 金泳三 대통령,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접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</li> </ul> <p>0 韓·美 외무장관회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휴전선에 집중된 북한군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韓·美안보협력체제 유지 합의</li> <li>- 美·北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보조를 맞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나는 金日成의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양시 중심부의 대동강에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을 건설할을 다음과 명령함.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민무력부에서는 청류다리를 연결하여 새로운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을 당창건 50돌이 되는 '95.10.10 까지 건설할 것.</li> <li>2. 정무원에서는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 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최우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.</li> </ol> <p>0 『韓民戰』 중앙위, 金正日 감사문 관련 감사 便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제네바 합의사항 이행을 봄가며 결정될것임</li> <li>- 북한에 대한 금융통신 등 경제규제 완화는 한꺼번에 모두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실천하게 돼 있음.</li> </ul> <p>0 러 외무관리, 美 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 반대 표명  * 데니소프 亞洲局 부국장 잡지 기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國이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치않고 일방적으로 對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것임.</li> </ul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1. 9	<p>추진해 나간다는 입장 재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크리스토퍼 장관은 북한 재래식 군사력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駐韓美軍 추가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</li> </ul> <p>0 한국기자협회, 南北기자교류 제의 * 조선기자동맹 앞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호 이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남북기자 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함.</li> <li>- 남북기자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빠른 시일내 판문점이나 서울·평양 등에서 갖기를 희망함.</li> </ul>		
11. 10		<p>0 『祖平統』 대변인, 南北경협안 거부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내외적 고립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한갓 연극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결정책의 파산을 자인한데 불과함.</li> <li>- 김 0 0에게는 그무슨 협력과 화해를 논의할 명분도 없으며</li> </ul>	<p>0 美 폐연료봉 전문가 회담 대표단, 平壤 향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만 울프 美 군축처 핵비확산 및 군축담당 副국장 등 핵전문가 10명으로 구성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 10		<p>때늦게 던지는 그의 미소를 받을 사람도 없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제협력을 윤운하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음.</li> <li>- 김 0 0 은 응당 자신의 엄중한 반자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함.</li> <li>- 北南 협력과 교류가 호상 신뢰에 기초해서 착실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루속히 국가 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.</li> </ul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12.12사건 관련 규탄 報道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역도와 괴뢰 검찰이 12.12를 군사구테타로,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도 그 주범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비호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행위임.</li> </ul> <p>0 北韓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, 적십자국제위 위원장에게 비전향 출소자 김영태 송환 협조 便紙 발송</p> <p>0 조선민주법률가협회, 남한내 반정부투쟁 지지 聲明</p>	<p>0 클린턴 美대통령, 한반도 비핵화 계속 개입 방침 언급 * 조지타운大 연설</p> <p>- 한반도 非核化에 계속 개입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亞·太국가들과의 쌍무안보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갈 것임.</p> <p>0 美국무부, 북한에南北경협 제의 호응 촉구</p> <p>- 북한이 金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건설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함.</p> <p>0 北, ARF · APEC 가입 희망 * 태국주재 북한대사관 대변인 발언</p> <p>- 북한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(ARF)과 아태경제협력체(APEC)에 가입하기를 희망함.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10		0 군사대표단(단장 최광), 캄보디아·라오스·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리핀·브루나이 등 동남아 미수교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.</li> </ul> 0 日,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강화 방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아사히신문 보도</li> </ul>
11.11	0 韓·比 정상회담 (마닐라)	0 빈주재 북한대사 김광섭, IAEA의 北核동결 감시활동 협조 의사 표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치담바람 IAEA 특별이사회 의장 면담시</li> </ul> 0 黨·政간부들, 단군릉 참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석 : 박성철, 김영주, 김병식, 계웅태, 한성룡, 홍석형, 김중린, 서관희, 장 철, 윤기복, 전문섭</li> </ul> 0 정무원 사무국 간부들, 金正日 명령 관철 궐기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日 정부는 중국과의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는 등 중국, 러시아, 한국과의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방침임.</li> </ul> 0 IAEA, 北核동결 이행 감시 착수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별이사회『의장 요약』채택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국에 대해 对北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함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총장에 대해 核동결 감시를 포함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함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요구해 오리라 생각함.</li> <li>- 정부는 對北경협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.</li> </ul> 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시범 經協사업 남북 당국간 협의 필수 언급  * 『民主平統』상임위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범적 경협사업이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수적임.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합의가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 협정의 조속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함.</li> <li>- 북한에 대해 관련 사항 이행을 위해 IAEA에 전면협조할 것을 촉구함.</li> </ul> <p>〈블릭스 사무총장 北核 보고 要旨〉</p>
0 韓·日 외무장관회담 (자카르타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AEA는 북한 핵동물을 △동결대상시설의 가동 불가 △신규 혹은 관련 시설의 건설 중단 △폐연료봉 재처리 불가 △핵물질·부속장비의 이동불가 △핵시설 유지보수 작업·핵물질 이동 시 IAEA 감시허용 등으로 이해함.</li> </ul>
0 韓昇洲 외무부장관, 북한 APEC 가입 후원 용의 표명 * 기자회견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국적 폐기처분이 합의된 흑연감속로와 그 관련시설은 해체과정에서 IAEA의 검증이 필요함.</li> <li>- 북한의 최초보고의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의 APEC 가입을 후원 할 용의가 있음.</li> </ul>		<p>정확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 안전협정 규정대로 조속한 협조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것으로 봄.</p>
11.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외무부 대변인, IAEA의 北 핵활동 감시조치 채택 환영 論評</li> <li>- UN안보리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과 북한의 핵동결 감시수행을 위해 IAEA에 부여한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.</li> </ul>	<p>0 폐연료봉 전문가회담 참가 美國 대표단, 平壤 도착</p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남한 전쟁 정책 추구 주장 '白書'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조선 당국자들의 무모한 전쟁정책은 힘에 의한 이른바 제도통일을 망상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음.</li> <li>- 전쟁책동은 피뢰군의 전력증강과 군사예산 증대, 도발적인 반북전쟁 폭언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.</li> <li>-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책동은 집요하게 추구하는 전쟁정책의 연장임.</li> </ul> <p>0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, 남한 재야단체의 12.12 관련 시위 지지 聲明</p> <p>0 『汎民聯』해외본부 의장 윤이상, 入北</p>	<p>0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, 核해결돼야 北 APEC 가입 언급</p> <p>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 핵개발계획 테러지원 등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한다면 APEC회원국 가입을 바랄 수 있을 것임.</li> </ul> <p>0 파노프 러외무차관, 러, KEDO 참여 희망</p> <p>* 서울신문 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러시아는 북한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.</li> <li>- 긴장완화와 함께 駐韓美軍의 단계적 철수는 당연한 귀결임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12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앞으로 러·北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나갈 것이나 군사협력관계는 아직 재개 계획이 없음.</li> </ul>
11.1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韓·印尼 정상회담 (자카르타)</li> <li>- 金泳三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속 지지를 요청</li> <li>-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평가하고, 북한의 美·北 합의사항 성실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희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『汎民聯』북측본부, 비전향 출소자 송환촉구 聲明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日 산케이신문, 美의회, 美·北 합의 심의 요구 가능성 보도</li> <li>- 공화당이 상·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美·北합의에 대한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음.</li> </ul>
11.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韓·美·日 3국 정상회담 (자카르타)</li> <li>&lt; 共同발표문 &gt;</li> <li>- 3國 頂上은 韓半島의 안정이 역내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함에 있어서 美國의 지속적인 役割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『祖平統』, 북한주민 유인·납치·살해 주장·경고장 발표</li> <li>-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범죄 행위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,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못할 반민족적 적대행위로 낙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함.</li> <li>1.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출장자들과 상주인원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들의 유인, 납치책동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美·日 정상회담 개최 (자카르타)</li> <li>- 클린턴 美大統領은 日·北 관계개선을 지지하나 南北對話 를 장려하기 위한 힘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</li> <li>- 무라야마 日總理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지원국에</li> </ul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국 정상은 核문제해결을 위한 北·美합의가 역내 안정과 번영증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지지함.</li> <li>- 3국 정상은 南北對話 재개 및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·미 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필수적임을 재확인, 북·미합의 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對北政策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</li> </ul> <p>○ 韓·美 정상회담 (자카르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클린턴 大統領은 韓·美 安保公約은 확고하며, 어떠한 주한미군의 감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</li> </ul> <p>○ 韩·日 정상회담 (자카르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韩·美·日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·강화하는데 의견일치</li> </ul>	<p>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.</p> <p>우리에게는 그에 강력히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응당한 권리가 있으며, 이 대응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로 될 것임.</p> <p>2. 남조선 괴뢰들의 유인, 납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조선 괴뢰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.</p> <p>3. 우리의 이 경고는 결코 빈 말이 되지 않을 것임. 우리는 한다면 반드시 하는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.</p> <p>○ 中放, 北 폐연료봉처리 관련 美·北 전문가회담 개최 보도</p> <p>- 지난 9. 21 제네바에서 발표된 朝·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원자력연구중심 방사화학연구소 소장 이상근을 단장으로하는 우리나라 대표단과 미국 군비통제 및 군축국 부국장 로만 울프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 사이에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專門家協商이 11. 14 平壤에서 시작 되었음.</p>	<p>韓·日뿐만 아니라 G7까지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</p> <p>○ 美·中 정상회담 (자카르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클린턴 大統領은 미국은 북한의 고립을 해소하고, 核 동결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</li> <li>- 江澤民 中國 국가주석은 北·美 합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, 중국과 미국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언급</li> </ul> <p>○ 토마스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, 美, 日·北수교회담 재개 지원 언급 * 日자민당 의원 대표단 면담</p> <p>- 美國은 美·北 관계개선회담과 함께 북한-일본간 회담 재개를 제의했음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14	<p>0 韓·中 정상회담 (자카르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金泳三 大統領은 북한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기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</li> <li>- 江澤民 中國 국가주석은 韓半島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절실히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</li> </ul> <p>0 韓·日 정상회담 개최 (자카르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金泳三 大統領은 남북대화 진전과 北·日 관계개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</li> <li>- 무라야마 日 總理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日·北韓 수교교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</li> </ul> <p>0 국무회의, 평시 軍作戰統制權 12.1 인수 의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協商에서는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진행되고 있음</li> </ul> <p>0 北·라오스 군사회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, 라오스 국방상 사이니야촌 참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1.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北·美專門家 協商에서 다시 일본과 북한의 회담재개를 提案할 생각임.</li> </ul> <p>0 美공화당, 北·美合意 문제점 추궁예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돌 美상원 원내총무 CBS 기자회견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북한 核협상이 제대로 된 타협인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.</li> </ul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5	<p>0 李洪九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, 남북경협은 당국간 협의 필요 강조  * 방송기자클럽 초청 연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번 경협조치를 정경분리정책으로 보면 오해임. 對北政策은 총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核·經協연계 고리를 완화한 1 단계 조치일 뿐임. 따라서 北韓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고리를 강화할 수도 있음.</li> <li>- 南北對話의 형식이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내년초까지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함.</li> <li>- 대화기구중 經濟共同委는 회담날짜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연기됐으므로 이 공동위 가동이 가장 바람직함.</li> </ul>	<p>0 비전항장기수 송환촉구 평양시 군중집회(인민문화궁전)  * 참석: 양형섭, 김용순, 유미영 백남준</p> <p>&lt; 백남준 연설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조선 赤十字社는 온 겨레의 목소리를 외면, 북적의 편지에 회답조차 보내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.</li> <li>-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김인서, 함세환, 김영태 노인들을 하루빨리 공화국북반부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함.</li> </ul> <p>0 윤이상 음악연구소 창립 10돌 기념보고회(청년중앙회관)  * 참석: 장철, 백인준, 윤이상</p> <p>0 공군사령관 조명록, 쿠바 방문 차 평양 출발</p> <p>0 정무원 수산부장 최복연(60세, 당 중앙위원) 사망</p> <p>0 『朝總聯』의장 한덕수, 구보 와타루 日사회당 서기장 면담</p>	<p>0 무라야마 日 總理, 對北 修交協商 조속 재개 입장 강조 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日·北 交渉에 응할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, 국교 수립 교섭을 하고 싶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.</li> </ul> <p>0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, 北-러시아 관계개선이 '韓半島 안정에 긴요하다'고 언급  * 러 외무부 대외정책연구원 주최 회의</p> <p>0 美 核전문가팀, 영변 핵시설 방문  * 日요미우리신문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核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에 체류중인 美 核전문가팀이 11. 15 영변핵시설을 들러봄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16		<p>0 외교부 대변인, 일본의 을사조약 날조 규탄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 당국자들은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8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불법무효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.</li> <li>- 우리 정부와 인민은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 정부당국의 부당한 입장과 태도를 준렬히 단죄함.</li> </ul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남한의 프랑스製 미사일 구입 규탄 報道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의연히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임.</li> <li>- 남조선 통치배들이 떠드는 경제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이 가짜이고 저들의 분열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한낱 거짓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.</li> </ul>	<p>0 IAEA·北 핵동결 감시 관련 協議 * 펠로 핵안전조치국 사무차장, 김광섭 빈주재 북한대사 참석 (빈)</p> <p>- IAEA는 조속한 시 일내에 전문기술팀 을 平壤으로 파견, 검증조치를 시작할 것을 제의</p> <p>※ 核동결에 대한 사 찰조건 목록 전달</p> <p>0 駐韓 美대사관, 美 기업인 訪北 허용 부인</p> <p>- 여행목적의 訪北은 인정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방북은 인 정할 수 없다는 입 장에서 바뀐 것이 없음.</p> <p>0 레이니 주한미대사, 北 과거핵 투명해야 경수로 핵심부품 제 공 언급</p> <p>- 북한이 과거핵 투 명성을 보장해야만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6			<p>경수로 핵심부품이 제공될 것임.</p> <p>① 北 대외경제위 부위 원장 김정우, 한국 기업 北韓투자 강력 희망  * 북경소식통</p> <p>- 11. 8~11 북경을 극비리에 방문,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남한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음.</p>
11. 17	<p>①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北 선별적·제한적 남북경협 협의 예상  *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</p> <p>- 북한은 성사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·제한적으로 經協 협의를 해 올 것으로 예상됨.</p> <p>② 韓·美, 경수로 지원 관련 실무협의 (워싱턴)  * 崔東鎮 경수로기획단장, 갈루치 핵담당대사 참석</p>		<p>① 北, IAEA 기술진 조속 입北 허용 표명  * 빈주재 참사관 윤호진 발언</p> <p>- IAEA 기술전문가들이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입국하도록 허용할 것이나 감시관들의 임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함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8	<p>0 韓·美·日, KEDO 구성 운영문제 관련 실무협의 * 崔東鎮 경수로 기획단장, 갈루치 美국무부 핵담당 대사, 야나이 순지 日외무성 총괄국장 참석 (워싱턴)</p> <p>&lt; 합의 내용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빠른 시일내에 KEDO를 발족시킴.</li> <li>- KEDO에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.</li> <li>- 韓·美·日 3국이 컨소시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韓國은 경수로 재정부담 및 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.</li> </ul> <p>0 崔東鎮 경수로 기획단장, 실무협의후 記者會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KEDO와 북한이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기업이 주계약자가 돼 KEDO와 상업계약을 맺게 될 것임.</li> <li>- 한국은 KEDO에서 경수로 지원에서만 중심역할을</li> </ul>	<p>0 폐연료봉 처리 관련 美·北 전문가회담 종료 (11.14~18, 평양)</p> <p>&lt; 공동발표문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 전문가들은 '94.11.14 ~18 평양에서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꺼낸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처분에 관한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음.</li> <li>- 협상과정에 寧邊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와 폐연료 보관시설에 대한 참관을 포함하여 광범한 통보 교환이 진행되었음.</li> <li>- 폐연료 보관시설의 물처리를 위한 계획이 토의되었음.</li> <li>- 쌍방 전문가들은 '94. 12월에 미결된 기술실무적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/ul> <p>0 외교부 대변인, 北 핵동결조치로 비핵화 공동선언 의무 완전 이행 주장 (記者會見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朝·美합의에 따라 폐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 보관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</li> </ul>	<p>0 亞太의원연맹(AAPU) 제29차 총회, 北 억류자 송환촉구 결의문 채택 (방콕)</p> <p>0 北, 羅津·先鋒지구 '95년부터 無비자 입국 허용 방침</p> <p>* 北대외경제 협력촉진위 부위원장 김웅렬 발언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18	<p>하고 폐연료봉과 대체에너지 제공에서는 재원부담을 하지 않기로 양해가 이루어졌음.</p> <p>0 韓·美 군사력평가회의 (MCC) 개최 (워싱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 특수전부대에 공군저격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전부대의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한다고 분석</li> </ul>	<p>서 완전히 처분하고, 방사화학 실험소를 봉인해 IAEA 감시하에 두다가 경수로가 완공되는 때에 궁극적으로 해체하게 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것은 北南 비핵화선언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됨.</li> <li>- 이제 北南 비핵화선언을 위해 할 일은 미국과 남조선측에 더 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朝·美합의문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임.</li> <li>- UN과 IAEA가 朝·美합의문을 환영하고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국제공약으로 되었으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.</li> </ul> <p>0 비전향 출소자 송환촉구 평양 시 청년학생집회 (청년중앙회관)</p> <p>0 북한 군사대표단, 라오스 방문 (11.14~17)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 도착  * 단장 :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</p>	
11.19		<p>0 北韓 군사대표단, 베트남 국방성 대표단과 회담 (하노이)  * 단장 :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</p> <p>0 고노 요헤이 日외무 장관, EU에 北경수로 지원 참여 촉구  * 日·EU각료회의</p>	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19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北韓 핵문제는 핵非확산 관점에서 국제문제인만큼 유럽연합(EU)이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.</li> </ul>
11. 20		<p>0 『祖平統』 대변인, 구국전위 사건 관련 비난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죄없는 사람을 우리와 연결시켜 재판, 처형하는 소동을 피우는 것은 조선반도에 감돌기 시작한 완화와 화해의 기류를 차단하고 北南대결을 조장 고취시키려는 날조극임.</li> <li>- 김 0 0 일당은 구국전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무조건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투옥한 각계인사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함.</li> </ul> <p>0 노동신문, 駐韓美기업인 방북은 美·北간의 문제라고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원 대변인이 미국 기업인들의 북조선 방문에 대해서 괴뢰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이하의 무례한 행동임.</li> <li>- 남조선은 朝·美사이의 관계에 함부로 코를 들이미는 어</li> </ul>	<p>0 IAEA 협상단, 北 핵동결 감시문제 협의차 向北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~5명의 사찰전문가와 기술요원으로 구성된 IAEA 협상단이 11.20 빈을 출발, 11.22 평양 도착 예정</li> </ul> <p>0 베이커 前 美국무장관, 北核보유 대비 요격미사일체체 구축 필요 주장 * 美 LATAIMS紙 기고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속되는 북한 핵 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제의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</li> </ul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0		<p>리석은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임.</p> <p>0 노동신문, 『汎民聯』결성 4돌 즈음 남측본부 결성 촉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범민력이 통일을 이루는데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면 남측본부가 빠른 시일내 결성되어야 함.</li> <li>- 北과 南의 범민련 조직은 남측본부의 결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남측 범민련 관계자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적극 지지해야 함.</li> </ul>	
11. 21		<p>0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성호, 對日비난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군위안부를 위한 인도주의적 민간기금은 몇푼의 돈으로 日本이 인류앞에 저지른 역사의 대죄를 그대로 묻어버리려는 교활한 책동임.</li> <li>- 일본 정부는 과거 전시죄행에 대하여 어물쩍 넘기려할 것이 아니라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연행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을 조사공개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함.</li> </ul>	<p>0 日,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 추진 * 日정부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日本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과 美·中·러 등을 포함하는 6개국 안보협의체『동북아지역포럼』구성을 검토중임.</li> </ul> <p>0 세베리노 필리핀 외무차관, '95년 對北 수교 가능성 언급 * 日니혼게이자이신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1. 21		<p>○ 訪北 최정남(한총련 대표), 귀환 즈음 記者會見 (고려호텔)</p> <p>- 북녘동포들의 조국통일 열기 는 金日成 서거 이후 더 높아 졌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 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알 게 됐음.</p> <p>-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맞이 하기 위해 北과 南, 해외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선두에 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임.</p> <p>- 김 0 0 의 가장 큰 죄악은 반 북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멀리 후퇴시키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더욱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을 가로지른 것임.</p> <p>○ 『韓民戰』 대변인, 구국전위 사건 관련 비난 論評</p> <p>○ 中放, 일본내 日·北 국교정상 화축구 모임 상세 보도 * 도쿄에서 개최된 日국회의원 들과 각계인사 참가집회</p> <p>○ 中放, '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' '95.4월말 개최 발표</p>	<p>문 회견</p> <p>- 태국주재 북한대사 이도섭이 12월중 필리핀을 방문, 국 교정상화 협상을 벌인뒤 조건이 충 족되면 내년중 수 교할 예정임.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1. 22	<p>0 金泳三 대통령, 먼데일 駐日 美대사 접견            - 북한 핵문제 해결이후 한반도정세와 美·北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의견교환</p> <p>0 宋榮大 통일원차관,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방침 표명            *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최 세미나            - 대학에서 통일관련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고, 북한학과 및 북한학강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.</p>	<p>0 中放, IAEA 협상대표단 평양 도착 보도            - 朝·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나라와 IAEA간 해결할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IAEA 협상대표단이 11.22 평양에 도착했음.</p>	<p>0 라빈 이스라엘총리, 北 중동지역 미사일 수출 우려 표명            * 폐리 美국무장관과 회담시            -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에 제공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우려를 폐리 장관에게 전달</p> <p>0 美 星條紙, 주한미군 감축중단 확정 보도            - '東아시아 전략구상'이라는 美국방부 보고서를 인용, 미군의 추가감축 중지결정이 확정됐다고 보도</p> <p>0 국제법률가委, 일본에 종군위안부 배상금 1인당 4만弗 지급 권고</p> <p>0 北, 수교前 日기업 북한 진출 불허방침            * 최근 訪北 재일교포 기업인 발언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2			- 평양 체류시 관계자들로부터 일본과의 관계개선문제에서 '先국교정상화 後경협추진' 원칙을 정했음을 확인했음.
11. 23	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北에 민주주의 강요 않겠다고 발언        * 以北5道 시장·군수를 위한 특강</p> <p>-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원칙이지만 이를 北韓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.</p> <p>- 새 시대에는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상호 協助할 수 있음.</p> 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美·北 핵합의 재검토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      * 민자당 당무회의</p> <p>- 美공화당내 일부 의원이 美·北합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백지화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인식하고 있음.</p>	<p>0 中·平放, 파노프 러 외무차관의 對北 관계개선 발언 보도</p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시위진압용 신형장비 도입 규탄 報道</p> <p>0 미전향 출소자 송환촉구 평양 시 여성집회 (청년문화회관)</p> <p>0 군사대표단, 동남아국가 순방 마치고 귀환 (11. 10~11. 23)        * 단장 :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</p> <p>- 중국군 광주군구, 캄보디아, 라오스, 베트남 방문</p>	<p>0 北·IAEA, 핵동결 감시활동 관련 協商 (11. 23~28, 평양)</p> <p>* 북한·IAEA 협상대표단간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을 감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논의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4	<p>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, 南北經協 후속조치 발표 * 제25차 남북교류협력 추 진협의회 회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南北經濟交流協力を 남북 교류협력을 규정한 제반 國內法 절차에 따라 신중 하고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규정과 구체적 대책방안 등 심의</li> <li>- i)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 에 관한 규정, ii) 국내기 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 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 침, iii)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·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 3개지침을 확정·발표</li> </ul> <p>0 귀순 안명철 북한군 하사 기자회견 * 프레스 센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동안 北韓이 부인해 왔 던 정치범수용소가 북한 곳곳에 실제로 존재함.</li> </ul>	<p>0 『汎民聯』북측본부 중앙위,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징 역구형 관련 규탄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온거례의 통일염원에 대한 또 한차례의 악랄한 도전임.</li> <li>- 김 0 0 일당의 이러한 처사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만 행으로 민족의 화해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 자들의 민족반역 행위로 준렬히 규탄함.</li> </ul> <p>0 노동신문, 美 보수세력이 美· 北합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 다고 비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 직도 교훈을 찾지 않고 군사 적 선택을 추구하는 것은 어 리석은 행동임.</li> </ul> <p>0 平放, 김정일을 '통일대통령' 으로 모실 것을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金正日 장군님을 통일대통령 으로 모시고 천세만세 받들려 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은 영원 히 변치않을 것임.</li> </ul> <p>0 최정남(한총련 대표), 북한 방 문 종료 平壤 출발</p>	<p>0 北, IAEA의 상주사 찰요원 추가파견 요 청 수용 * 외무부 당국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AEA는 寧邊에 파 견된 2명의 사찰요 원외에 추가요원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북한도 수용한 것 으로 알고있음.</li> </ul> <p>0 北, 외국인투자보호 법 제정 추진 * 북경 서방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 정무원은 최근 김정일 특별지 시로 북한에 투자 한 외국기업이 파 산할 경우 국가차 원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외 국인투자보호법을 마련했음.</li> </ul> <p>0 北, 김정일 초상화 우표 첫 해외 공개 * 佛 렉스프레스誌 보도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1. 25	<p>0 韓昇洲 외무부장관, 경수로업체 선정권 KEDO 보유 언급 *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</p> <p>- 11. 18 워싱턴 韓·美·日 실무회담에서 주계약자인 건설업체를 선정할 권리 를 북한이 아닌 KEDO가 갖기로 합의했음.</p>	<p>0 中放, 패트리어트 미사일 남한 내 영구배치 결정 비난</p> <p>- 北南관계를 전면 대결에로 끌 어가는 위험천만한 사태발전 으로서 용히할 수 없는 노골 족인 군사적 도전행위임.</p> <p>- 朝·美 기본합의문의 쌍방이 조선반도의 비핵화,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할데 대한 사항에 배치되는 것임.</p> <p>- 美國은 힘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패트리어트 미사 일을 당장 끌어내가고 남조선에 대한 무기강매책동을 그만 두어야 함.</p>	<p>0 마이어 IAEA대변인, 北韓과 핵동결감시 협상 관련 언급</p> <p>- IAEA협상단과 북한 당국과의 핵동결 협의가 다음주에도 계속될 것임. 협상은 건설적으로 진행중임.</p> <p>0 日연립여당, 訪北선 발대 파견요청 거절 * 모리 자민당 간사장 발언</p> <p>- 북한이 연립여당 3당의 政調會長級 선발대를 보내달라는 정식 초청이 있었으나 거절했음.</p> <p>0 日연립여당, 정신대 민간기금 창설 합의</p> <p>- 민간모금으로 기금 을 창설해 위로금 을 지급하고, 기금 대상을 前군대위안 부만이 아닌 여성 지위향상사업을 포 함시킨다는 것에 합의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5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日, 플루토늄 4.7t 보유 발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日과학기술청 『94년도 원자력백서』</li> </ul> </li> <li>- '93년말 현재 일본 국내에 저장돼있는 플루토늄은 4.7t에 달하는것으로 추정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北, 블라디보스토크에 정무원 대표부 개설 추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모스크바방송 보도</li> </ul> </li> <li>- 北대외경제위 대표단이 11.14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, 정무원대표부를 개설키로 합의</li> </ul>
11. 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귀환 趙昌浩 중위,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촉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역식, '북한 당국에 보내는 호소문' 발표</li> <li>- 북한 당국자들은 6.25 남침에 대하여 사죄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적십자회담에 응해야함</li> <li>- 지금이라도 제네바협약을 준수하여 國軍 포로들의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中放,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일본에 국가배상 촉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정부가 최근 새롭게 고안해낸 이른바 사죄편지를 보내는 놀음에는 종전의 입장에서 전진한 새로운 것이란 아무 것도 없음.</li> <li>- 日정부는 민간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 공개하고 국제법의 요구대로 마땅히 배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日교도통신, KEDO 기존 국제기구에 편입 추진 보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日외무성 소식통 인용</li> </ul> </li> <li>- 韓·美·日은 KEDO를 유엔개발계획(UNDP)이나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같은 기존 국제기구의 일부로 하는 데 합의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6	생사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즉각 송환해야 함.	<p>하여야 함.</p> <p>0 黨·政 고위간부들, 광천 식료 공장과 영예군인수지일용품 공장 참관  * 참석 : 이종옥, 김영주, 김영남  한성룡, 최태복, 최영림, 흥성남  양형섭, 흥석형, 김국태 外</p>	<p>0 파노프 러외무차관,  경수로 판매 모색차  北韓에 대표단 파견  언급  * 교도통신 보도</p> <p>- 러시이는 對북한  경수로 판매를 모  색하기 위해 대표  단을 12월 평양에  파견할 계획임.</p> <p>0 北, 로이드社에 흥  작보험 2억弗 요구  * 중앙일보 보도</p> <p>- 북한은 식량난에  대비해 '90년 로이  드社의 흥작보험에  가입한 뒤 매년 1  천만달러의 보상금  을 요구했으나 올  해엔 2억 1천만달  러를 요구했음.</p> <p>0 中, 북한접경지역에  北核 감시위한 지진  감측소 설치說  * 북경소식통</p> <p>- 중국은 10월 美·日  등의 협조를 얻어  북한 접경지대 일원  에 핵폭탄 실험여부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6			<p>를 감지할 수 있는 지진감측소를 설치 했음.</p> <p>0 日 지지통신, 北 총 베트남 쌀 바터무역 합의 보도</p> <p>- 최광의 베트남 방 문시 북한제 군용 총의 부품·총탄과 베트남산 쌀을 상 대방에 공급하는 바터무역을 하기로 합의했음.</p>
11. 27		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남한의 군 사훈련 실시 비난 報道</p> <p>- 우리는 이미 독수리 94, 방패 등 북침전쟁연습이 朝·美 기 본합의문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데 대해서와 그 엄중성 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바 있음.</p> <p>- 만약 김 0 0 이 우리의 거듭 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을 격화시키는 길로 나간 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 인 책임지게 될 것임.</p> <p>0 노동신문, 金日成사망 조의 표 시 거부 거듭 비난</p>	<p>0 美 공화당, 對北 중 유지원 저지 추진 * NYT紙, 머코스키 상원의원 발언 보도</p> <p>- 美행정부가 북한에 한 양보를 지지하 지 않으며,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구입비용 지원을 저지하겠음.</p> <p>※ 갈루치 美국무부 핵담당대사는 “對北 중유제공 저 지결의가 상원에서 있을 경우 美·北 협상은 원점으로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7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일당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동족의 유고시에 감행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임.</li> <li>- 이제와서 협력이나 뭐니하는 것이야말로 무뢰한의 뻔뻔스러운 수작임.</li> </ul>	<p>되돌아갈 것 ”이라 고 경고</p> <p>○ 金日成, 신중한 경 제개방 지지 표명說 * 도교소식통, 한덕 수 朝總聯 의장 발 언 인용 언급</p> <p>- 金日成은 사망하기 이틀전 黨간부회의 를 소집, 신중한 경제개방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나 타냈으며 북한지도 부는 이를 유언으 로 간주하고 있음.</p> <p>○ 北, 유럽국가들과 수교 추진 * 조선일보 보도</p> <p>- 11. 25 파리주재 북 한대표부 직원이 네덜란드에 수교의 사를 전달하는 등 유럽국가들과 외교 수립을 위한 공세 를 벌이고 있음.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28		<p>○ 北韓 원자력총국대표단-IAEA대표단, 핵동결 감시활동 관련 협상 종료 (11.23~28, 平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中放 보도 내용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원자력총국 대표단과 IAEA 대표단은 '94.11.23~28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IAEA사이에 해결 해야 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음.</li> <li>- IAEA 대표단은 영변과 태천을 방문하고 朝·美기본합의문에 지적된대로 핵시설들이 정확히 동결되어 있고 건설작업이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.</li> <li>- 쌍방은 우리 나라에서 IAEA의 활동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음. 일부 문제들은 다음 번 협상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했음.</li> </ul> <p>○ 노동신문, 일본의 종군위안부 민간기금 설립 추진 비난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징적인 위문금으로 선심을 쓰는 척하여 여론을 기만하며 과거청산문제를 어물쩍해 넘기려는 교활한 솔책임.</li> </ul>	<p>○ IAEA, 北 核동결 확인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AEA 전문기술팀이 부분적으로 현장사찰에 차수, 북한의 핵동결을 확인했음</li> </ul> <p>○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美國 대표단, 北京 향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개리 세이모어 美 국무부 핵비확산 담당과장 등 10명</li> </ul> <p>○ 日방위정보고서, 北 체제 10년은 유지 전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방위청 산하 방위 연구소 내부보고서</li> </ul> <p>- 北韓 장래와 관련, 미지수 상태인 김정일의 경제적 수완, 간부의 고령화 등 불안정요소가 있으나 10년정도는 현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</p> <p>○ 日연립여당, 訪北선발대 우선 서울파견 방침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8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적 범죄는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응당함.</li> <li>-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 공개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응당한 보상을 해야함.</li> </ul> <p>0 黨·政고위간부들, 채취설비생산기지 5월 10일 종합공장 참관  * 참석: 이종옥, 김영주, 김영남, 한성룡, 최태복, 최영림, 홍성남, 양형섭, 홍석형, 김국태 外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訪北선발대 대표로 내정한 사키야마 日사회당 정책심의 회장과 호리 자민당 政調會長대리를 11. 29 한국에 우선 파견키로 결정</li> <li>0 강석주, 갈루치에 보안법 폐지 영향력 행사 요청 편지說  * 박영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, 美 국무부 관리 면담시 확인 언급 (12. 20)</li> <li>- 北韓외교부 부부장 강석주는 11. 28 갈루치 美핵대사에게 公翰을 보내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, 국가보안법을 폐지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음.</li> </ul>
11. 29	<p>0 金泳三 대통령, 한국의 자유와 번영의 힘으로 통일 이루 언급  * 서울 1000년 타임캡슐에 넣은 대통령메시지  -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힘으로 멀</p>	<p>0 노동신문, 自由民主體制 統一論 비난 논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론은 곧 승공통일론을 되살린 것으로서 전쟁으로 우리를 먹어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져있는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는</li> </ul>	<p>0 IAEA 협상대표단, 북한 방문마치고 平壤 출발</p> <p>0 구보 日 사회당 서기장, 연립여당 대표단 訪北計劃 취소 발표</p>

■ 11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 29	<p>지않아 겨레의 통일을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.</p> <p>0 북한산 모래 1만 4천t 첫 반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(주)서평건설은 조선족이 경영하는 연변항운공사의 중개로 청진시 와 5년간 총 5백만t의 북한산 모래 반입계약을 맺고 1차분 1만4천t을 통해 항에 반입</li> </ul>	<p>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제협력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내부를 허물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의 길을 터보려는 불순한 기도도 깔려 있을 것임.</li> </ul> <p>0 민주조선, 南韓이 미·북합의 이행 방해 비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일당은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안에서는 대결과 전쟁소동을 피우고 밖에서는 공조체제 청탁 놀음을 벌였음.</li> <li>- 괴뢰들이 대화요 경제협력이 요 떠들어댔지만 이것은 분과 대결을 추구하는 그들의 반민족, 반통일적, 사대매국 행위를 감싸기 위한 여론오도 술책이었음.</li> </ul> <p>0 美·北 連絡事務所 개설 전문 가회담 북한대표단, 워싱턴 向發</p> <p>0 美·北 경수로 제공 전문가회 담 북한대표단, 北京 향발 * 단장 : 김정우(대외경제위 부 위원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늘 北韓側이 대표단선발대의 방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해 왔음.</li> <li>- 여당으로서는 先發隊의 파견계획이 拒否된 만큼 대표단 자체의 방북계획도 取消하지 않을 수 없음.</li> <li>0 美의회조사국, 美·北 核협력협상 곧 시작 예상 * 美·北관계 개선관련 보고서</li> <li>- 미국은 對北경수로 지원과 관련, 조만간 美·北간 핵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 할 것으로 보임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1.30	<p>0 韓國정부, 平時작전통제권 환수 * 韓·美 공동성명</p> <p>- 韓美聯合司令官이 수행해 온 한국군부대에 대한 평 시작전권이 12월 1일부로 韓國政府에 移讓됨.</p> <p>- 韓昇州 외무장관과 레이 니 駐韓美國대사는 양국 정부를 대표, 『대한민국 정부와 美합중국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 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 정에 관한 交換覺書』에 서명하였음.</p>	<p>0 美·北경수로 전문가회담 개막 (11.30~12.2, 북경)</p> <p>0 『韓民戰』중앙위, 美·北회담 체방정책 폭로·고발장·발표</p>	<p>0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원장 김정우, 韓國 船 나진·선봉 入港 허용 언급 * 10월중순 在美통신 사 『US 아시아 뉴 스』紙 회견</p> <p>- 자유경제무역지대 (경제특구)인 나진 · 선봉항에 韓國船 이 韓國國旗를 달 고 매일 입항해도 관계 없음.</p> <p>0 日, 對北수교문제 주변국과 협의추진 방침 * 訪韓 호리 자민당 정조회장대리·세 키야마 사회당 정 책심의회장 언급</p> <p>- 日·北 국교정상화 문제는 전후처리차 원의 입장뿐 아니 라 한반도와 동북 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변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1	<p>0 金泳三 대통령, 작전통제권 환수계기 自主國防기틀 마련 강조 * 군작전지휘관의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신고식</p> <p>- 이를 계기로 국군주도의 방위태세를 갖추어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임.</p>	<p>0 北韓 인권연구협회 대변인, 제29차 아·태의원연맹 총회 對北 인권개선촉구 결의안 비난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조선 괴뢰들과 공모하여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협박하고 모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 책동임.</li> <li>- 우리 나라에서는 복받은 인민들과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의거자들과 재일귀국자들이 있을 뿐 남북 차나 억류자는 없음.</li> <li>- 우리는 아시아·태평양의원연맹이 결의안 채택을 철회하고 그 무효를 선포해야 하며 사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.</li> </ul> <p>0 中·平放, 작전통제권 인수 관련 비난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시작전통제권이나 넘겨받는다고 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인 남조선이 하루아침에 주권국가로 둔갑할 수는 없음</li> <li>- 군사행동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연합훈련과 군사정보관리는 남의 군대가 쥐는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졌대야 빈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것임.</li> </ul>	<p>0 갈루치 美국무부 핵 담당대사, 美, 對北 중유 1차분만 부담 재확인 * 美상원 외교위 東亞 太小委 주최 北核 청문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첫 선적분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그이후 제공분은 국제컨소시엄에서 부담하게 될 것임.</li> <li>- 북한측은 핵시설 동결을 IAEA의 확인뿐 아니라 미 의 기술자들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동의했음.</li> </ul> <p>0 亞·太지역 14國 안보포럼 개최 * 日방위청산하 국방 연구소 주최 (12.1 ~17, 도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韓·美·日 등 亞·太지역 14개국 고위 군사관계자들이 참석, 자국의 방위전망등을 논의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1		<p>0 전국노동일꾼대회 (12.1~ , 인민문화궁전)</p> <p>* 참석 : 이종옥, 한성룡, 최영림 홍성남, 홍석형, 김 환, 김복신 박남기</p>	
12. 2	<p>0 차세대 전투기 F-16 1호機 출고식 (美 텍사스 포트워스 공항)</p> <p>* 金鴻來 공군참모총장 참석</p> <p>-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(KFP) 사업에 따라 美 록히드사가 제작한 F-16 1호기 출고식 진행</p>	<p>0 美·北경수로 전문가회담 종료 (11.30~12.2, 베를린)</p> <p>&lt; 공동발표문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는 '94.11.30~12.2 베이징에서 조선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 제공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.</li> <li>- 쌍방은 朝·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 사항들에 맞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.</li> <li>- 협상은 복잡한 문제들을 취급하였으며 진지하고 유익하였음.</li> <li>- 다음번 협상을 '95.1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음.</li> </ul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추곡수매가 인상요구 농민시위 관련 대남 비난 報道</p>	<p>0 美국무부, 美·北 연락사무소 전문가회담 일정 공식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락사무소 교환설치에 관한 영사문 제와 그외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.6~9까지 워싱턴에서 개최</li> <li>- 린 터크 북한조정관, 박석균 북한 외교부 부국장 참석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3		<p>0 美·北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귀국  * 단장 : 김정우 (대외경제위 부위원장)</p> <p>0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'95. 4 개최 관련 記者會見 (인민문화궁전)  * 참석 : 신일본 프로레슬링 주식회사 대표단, 김관철 국가체육위 부위원장</p> <p>0 인민무력부장 오진우, 파리에서의 질병치료 마치고 귀환 (10.25 - 12.5)</p>	<p>0 北, 독일에 대사급 수교 요구說  - 최근 본에 북한이 익대표부 직원을 파견, 외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舊동독과 맺은 협정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요구</p>
12. 4		<p>0 노동신문, 작전통제권 인수 관련 군통수권을 빼앗겼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에 군사통수권까지 빼앗긴 식민지 괴뢰의 가련한 몰골을 드러낸 추태임.</li> <li>- 남조선 사회가 자주화되기 전에는 그따위 작전권이 양눌음을 수백번 벌여도 소용이 없음.</li> </ul>	
12. 5	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김정일 내년 3, 4월 승계 전망  * 기자간담회(베를린)</p>	<p>0 平放, DMZ내 남측의 군사도발 주장 비난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거듭 되는 총포탄 사격사건에 대해</li> </ul>	<p>0 美·北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 북한대표단, 워싱턴 도착  * 외교부 부국장 박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은 내년 3, 4월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일의 주석 선출 등 권력 승계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됨.</li> </ul>	<p>매우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일당이 극도로 정세를 긴장시키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행단계에 들어선 朝·美 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으려는데 있음.</li> </ul> <p>0 劳動新聞,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고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金日成의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위대한 영도자인 김정일에게 영원히 충실히하겠다는 결의임.</li> <li>- 金日成 동지는 김정일 동지이고 金正日 동지는 김일성 동지임.</li> </ul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남한내 학생 시위관련 대남 비난 報道</p>	<p>석균 등 5명</p> <p>0 金日成, 사망前 금강산 종합개발안 승인説 * 北京 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金日成은 금강산지역을 국제적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1.27 금강산국제그룹이 작성한 '금강산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'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음.</li> </ul>
12. 6		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남한도 核동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남한 핵개발 '진상공개장'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조선 당국은 현재와 미래의 核 결백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무기개발 동결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함.</li> <li>- 핵무기 제작 실상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현존 핵무기 개발</li> </ul>	<p>0 美·北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(12.6~9, 워싱턴) * 연락사무소 개설에 따른 기술적 문제 협의</p> <p>0 머코스키 美 공화당 상원의원, 美·北 합의 이행 표명 * 기자회견(도쿄)</p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6		<p>수단들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임.</p> <p>-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하게 핵무기개발에 악용되고 있는 월성중수로와 대덕다목적연구로, 조사 후 시험시설등 일체 관련수단들에 대한 폐기 및 봉인조치를 취해야 함.</p> <p>0 平放,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예속과 약탈의 수단이며 내정 간섭의 옮가미라고 주장</p> <p>0 黨·政 고위간부들, 영화·민족과 운명·제19부 관람 (인민문화궁전) * 참석 : 김병식, 최광, 전병호, 한성룡, 최영림, 홍성남 外</p> <p>0 『社勞青』- 러시아 공산주의 청년동맹, 공동결의문 발표 (평양) * 러시아 사회주의 재건 투쟁 및 민족대단결 10대강령 조국통일운동 지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核합의 조건을 이행할 것임.</li> </ul> <p>0 日연립여당, 종군위안부 개인별 보상 방침 확정 * 3당 대표회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군위안부 민간기금 설치문제를 논의, 개개인에게 일시금 지급과 민간기금에 정부출자 방침을 최종 결정, 정부에 요구키로함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7	<p>0 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, 기업인 訪北 허용 언급 * 기자회견</p> <p>- 금주중 6~7개 기업관계 자들의 訪北을 일괄승인 할 예정임.</p> <p>0 호남정유, 北韓에 병커C유 5만t 공급 발표 - 美·北 기본합의문에 따른 對北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측 제공분 병커C유 5만t (화력발전소 연료용)을 12. 15~31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</p>	<p>0 中放, 美·北 連絡事務所 개설 전문가회담 워싱턴 개최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朝·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朝·美사이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전문가협상이 12. 6 워싱턴에서 시작되었음.</li> </ul> <p>0 金日成의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 30돐 기념보고회 (평양 국제영화회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석 : 이종옥, 김기남, 장 철 강석승, 백인준 外</li> </ul>	<p>0 구르 이스라엘 국방 차관, 北·이란 미사일 공동개발 추진 언급 * 방송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란은 사정거리 1,3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구입·합작생산하기 위해 北韓과 접촉중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음.</li> </ul> <p>0 北, 최근 파리에서 나진·선봉특구 설명회 개최 * 대한무역진흥공사 파리 무역관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리주재 북한대표부 경제담당자는 최근 프랑스 기업의 북한투자 유치를 위한 나진·선봉특구 설명회를 개최</li> </ul>
12. 8	<p>0 南北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- 對北경협 활성화조치(11. 8) 이후 북한 방문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訪北승</p>	<p>0 北韓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 민간항공기에 대한 영공개방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김요웅 민용항공총국장·ICAO 이사회위원장 회담(몬트리올)</li> <li>* 12. 22字 中放 보도</li> </ul>	<p>0 IAEA 이사회 개최 (12. 8~9, 빙) * IAEA 사찰단의 北核동결 사찰활동 상황 논의</p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8	인문제 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용항공총국장은 공화국정부가 자기의 영공을 거쳐 세계의 모든 나라 민영기들이 착륙, 혹은 통과비행할 수 있도록 영공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시한번 취했다는 데 대해서 통보했음.</li> <li>- 또한 공화국 정부가 국제항로 통과협정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통보했음.</li> </ul> <p>0 『汎民聯』해외본부,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 의장 장역형 구형 관련 대남 비난 聲明</p> <p>0 黨·政 고위간부들, 김일성 현 지지도 30돌 즈음 조선예술영 화촬영소 참관 격려        * 참석 : 강성산, 이종옥, 김영남 최 광, 계응태, 전병호, 한성룡 최태복, 최영림, 홍성남 外</p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국가보안법 위반 단속 비난 報道</p>	<p>&lt; 블릭스 사무총장 보고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찰반은 동결대상 시설이 현재 가동 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작업도 중단됐음을 확인했음.</li> <li>- 북한이 사찰단의 추가파견을 검토하고 이들을 위한 비자발급을 간소화할 용의를 시사했음.</li> </ul> <p>0 세계은행(IBRD), 北 경제지원 모색        * 美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계은행이 美·北 합의를 계기로 북 한경제를 개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부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음.</li> </ul> <p>0 린 데이비스 美국무 차관, 미사일수출 중단해야 美·北 관계 확대 언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중거리미사일과 발사장비를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8			<p>계속 공급해온 점을 우려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같은 무역이 중단돼야만 미국이 외교관계 확대를 준비하게 될 것임.</li> </ul> <p>0 길먼 美하원 국제위원장 내정자, 北核 합의 이행 추가보장 필요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북한에 상당한 중유를 제공해야 하나 북한으로부터 더욱 엄정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음.</li> </ul>
12. 9	<p>0 宋榮大 통일원차관, 北 개방폭 싸고 강온派 대립 언급</p> <p>* 언론사 북한부장 초청 간담회</p> <p>- 북한은 대외개방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強·穩派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아직까지 내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.</p>	<p>0 美·北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담 종료 (12. 6~9, 워싱턴)</p> <p>* 린 터크 美국무부 부과장, 박석균 北韓외교부 부국장 참석</p> <p>&lt; '공동발표문' 要旨 &gt;</p> <p>- 朝·美 대표단은 기본합의문에 따라 '94. 12. 6~9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과 관련한 영사 및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.</p>	<p>0 허바드 美국무차관 보, 美·北전문가회담 관련 記者會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년 전문가회담에서 부지선정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야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임.</li> <li>- 북한의 미사일수출 문제, 미군 실종자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2. 9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상은 협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진행되었음.</li> <li>- 쌍방은 영사문제들과 거의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을 보았으며, 남은 문제는 연락사무소의 적합한 부지를 확정하는 것임.</li> <li>- 쌍방은 '95년초에 부지조사를 위한 전문가대표단을 각기 상대방 수도들에 보내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li>0 조선민주법률가협회, 남매간첩 사건 관련 대남비난 聲明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 0 0 일당이 터무니없는 간첩사건을 마구 조작해내는 것은 궁지에 몰린 앞날이 없는 자들의 단말마적 발작임.</li> </ul> </li> <li>0 정춘실운동 선구자대회 개최 (12. 9~10, 인민문화궁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석 : 강성산, 이종우, 한성룡, 서윤석, 최태복, 홍석형, 연형묵, 김기남, 김중린, 서관희 外</li> </ul> </li> <li>0 『朝總聯』,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집회 (도쿄)</li> </ul>	<p>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, 이 과정에서南北對話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락사무소의 格은 비엔나협약상 가장 낮은 급이 될 것임</li> <li>- 북한측 대표들은 평화협정이 채결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休戰協定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10	<p>0 金泳三 대통령, 남북정상 회담 관련 언급 * 국민일보 창간6주년 기념 회견</p> <p>- 북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으로 정상회담을 연기한 만큼 그들의 반응을 기다려 볼 것임.</p> <p>0 政府,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국내 6개기업 訪北 승인</p> <p>- 릭키금성, 삼성, 현대, 쌍룡 등 대기업 4개사와 영신무역, 대동화학 등 중소기업 2개사에 대하여 南北經協 협의를 위한 방북을 승인</p>	<p>0 『社勞青』중앙위, 남매간첩 사건 관련 대남비난 聲明</p>	
12. 11		<p>0 美상원 머코스키·사이먼 의원 訪北(12.11~12) * 12.12 김영남·양형섭 면담</p>	
12. 12	<p>0 金泳三 대통령, 訪北 美상원의원 일행 접견 &lt; 金泳三 대통령 발언 &gt;</p> <p>- 북한체제의 우발성 때문에 합의의 이행상태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.</p>	<p>0 訪北 美상원 머코스키·사이먼 의원 일행, 판문점 記者會見 * 中放 보도</p> <p>-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귀 정부가 朝·美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음.</p>	<p>0 갈루치 美국무부 핵 담당대사, 美 대북 부담 매년 수천만 달러 언급</p> <p>- 미국의 분담금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며, 1년에 수 천만달러가 될것임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가 그 어느때보다 韓美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시점임.</li>   <li>&lt; 머코스키일행 訪北설명 &gt;</li> <li>- 현단계에서 북한은 제네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음.</li> <li>- 북한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美·北 관계개선은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음.</li>   <li>0 金泳三 대통령, 北 권력승계 뒤 남북대화 기대</li> <li>* MBC 창사 33주년 기념 특별회견</li> <li>- 이렇게 오래도록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.</li> <li>- 북한의 권력승계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호간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는 미국 정부도 자기가 지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였음.</li>   <li>- 우리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朝·美기본합의문 테두리안에서 두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함.</li>   <li>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, 콘크리트장벽 구축 15돐 관련 세계 각국 국회·정치인에게 보내는 '호소문' 발표</li>   <li>- 콘크리트장벽은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통일을 반대하며 정치 군사적 신뢰조성을 가로막는 물리적 차단물임</li>   <li>- 여러 나라 국회들과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콘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.</li>   <li>0 정춘실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국가표창 및 선물 수여식 (인민문화궁전)</li> <li>* 참석 : 계웅태, 한성룡, 최태복</li>   <li>0 北, 『軍停委』 중국대표단에게 훈장 수여(만수대의사당)</li> <li>* 참석 : 이종우, 송호경, 교종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탄도미사일 수출중단과 함께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재래식 병력이 철수문제가 해결돼야 함.</li>   <li>- 서방선진 7개국과 동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을 참여시켜 KEDO의 회원국을 늘리는 작업을 시작했음.</li>   <li>0 美, 한국전 초기 原爆 사용 검토</li> <li>* 美국방부 비밀문서 공개</li>   <li>- 美 극동군사령부는 존스 흉킨스대 전문가들과 극비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2.13	<p>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, 北, 제한적 개방·개혁 불가피 전망  * 통일교육활성화 세미나 치사</p> <p>- 북한은 경제난 해소·국제적 고립탈피 등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개방·개혁이 불가피할 것임.</p> <p>- 이같은 북한의 사정과 함께 주변상황 역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통일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임.</p> <p>- 통일문제는 단순한 논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, 統一對備態勢 완비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.</p> <p>0 쌍룡그룹 經協조사단, 북한 방문(12.13~17)  * 그룹 부회장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</p> <p>- 청진과 나진·선봉지역을 시찰하고 北대외경제협력 추진위 임태덕 부위원장과 시멘트분야 협력사업</p>	<p>0 平放, 남북간 일체 政爭 및 비방증상 중지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족적 단합을 이루하자면 北과 南사이에 정쟁을 중지해야 함.</li> <li>- 지난날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서 대방을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체 정쟁을 그만두고 비방증상을 중지해야 함.</li> </ul> <p>0 勞動新聞, 김정일 논문 '사회주의는 과학이다' 발표로 우리式 사회주의의 지도적 지침 마련 주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덕정치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명됨으로써 우리 式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빛내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음.</li> </ul> <p>0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,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확산 관련 '통보' 발표</p> <p>0 反공화국 모략책동 규탄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(사로청 중앙회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첨석 : 정두환, 허창조</li> </ul> <p>0 平放, 조창호 처를 등장시켜</p>	<p>0 라빈 이스라엘총리, 北, 核·미사일기술 중동수출 우려 표명  * 日외상과의 회담시 (도쿄)</p> <p>- 북한이 核무기 개발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미사일 기술을 이란·시리아에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</p> <p>0 北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장웅, '95. 3월부터 국제체육활동 재개 언급  *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(ANOC) 총회 참석(美 애틀랜타)</p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2. 13	및 나진·선봉지역 투자 문제 논의	<p>조창호는 투항귀순자라고 주장</p> <p>0 외교부장 김영남, 작별 방문해 온 軍停委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과 담화</p>	
12. 14		<p>0 외교부장 김영남,弔問금지 사과없이 남북대화 不可 언급 * 獨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紙 회견(12.14字 보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한측이 조문금지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한 남북대화는 결코 속개되지 않을 것임.</li> <li>- 金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추도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죄해 여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.</li> <li>- 金正日이 아직 국가주석직을 승계치 않고 있는 것은 3年喪을 치르는 전통예법에 따른 것임.</li> </ul> <p>0 「汎民聯」북측본부, 남매간첩 사건 관련 비난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청학련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있는 한총련과 법청학련 공동사무국을 모해하고 파괴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꾸며진 날조극임.</li> </ul>	<p>0 북경방송, 韓國의 對北경협조치는 남북대화 여건 조성 위한 것이라고 평가</p> <p>- 한국정부의 조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, 南北對話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.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14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괴뢰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,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음.</li>   <li>0 中央通信,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北 핵·미사일기술 중동판 매 발언 비난</li>   <li>- 평화애호적인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매우 불순한 정치적 기도임.</li> </ul>	
12. 15	0 韓·이스라엘 정상회담 (서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</li>   <li>- 金泳三 대통령은 북한의 對중동수출은 자신들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국제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절대 안된다 고 강조</li>   <li>-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에 스커드C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, 이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거리 1천 3백km의 노동미사일을 개</li> </ul> <p>0 『軍停委』 중국군대표단, 판문점에서 완전 철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中放 보도 要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수하는 軍停委에 와있던 중국인 민지원군대표단이 12.15 평양을 출발했음.</li>   <li>- 중국정부가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지지로 됨.</li>   <li>0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, 김정일 승계자연은 김일성 애도때문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 UN총회, 核안전협정 이행 및 IAEA 사찰 수용촉구 對北결의안 채택</li> <li>* IAEA 연례활동보고서에 관한 결의안</li>   <li>-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.</li>   <li>-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의 완전 이행을 위한, 진행중인 양자간 협의를 포함한 모든 노력들을 지지함.</li>   <li>- IAEA 사무총장 및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15	<p>발중이라고 언급</p> <p>① 宋榮大 통일원 차관, 남북 경협 신증접근 필요 강조 * 전경련 산하 국제경제원 조찬간담회</p> <p>- 남북경협에 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경협은 서둘러서는 안되며 신중하고 질서있게 접근해야 함</p> <p>②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(서울) * 총재 : 김연준</p> <p>-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납북억류자 송환 활동 목적의 순수민간단체로 출범</p>	<p>라고 언급</p> <p>- 김일성을 아질도 깊이 애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임명할 준비가 안돼있음.</p> <p>① 비전향 출소자 김병주의 아들 김명진, 남한 이복여동생 김지현에게 便紙 발송</p> <p>② 『법청학련』 북측본부, 한총련 의장 겸기 관련 비난 聲明</p> <p>③ 재일동포 귀국실현 35돐 기념 중앙보고대회(인민문화궁전) * 참석 : 박성철, 양형섭, 김용순 장 철, 박남기</p>	<p>서기국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함.</p> <p>-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 실행을 통해 IAEA에 협조할 것과 모든 안전조치 관련 정보·장소에 대한 IAEA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.</p> <p>① 美 헤리티지재단, 美·北 핵합의 의회 재검토 필요 건의 * 美공화당 '95년도 정책지침서 작성</p> <p>② 美 민간인권단체, 北인권 최악 평가 * 美 프리덤하우스 '94 세계인권상황 보고서</p> <p>- 북한을 이라크, 수단과 함께 인권탄압이 가장 극심한 3국중 하나로 선정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16	<p>0 韓·美·日, KEDO 설립 관련 고위실무협의 (12.15~16, 워싱턴)</p> <p>* 崔東鎮 경수로기획단장, 갈루치 美국무부 핵담당 대사, 엔도 日외무부 대사 참석</p> <p>〈 공동발표문 要旨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국적 컨소시엄 KEDO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뉴욕에 두기로 결정했음.</li> <li>- 3국은 KEDO의 창립멤버로서 이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음.</li> <li>· 韓國은 한국표준형의 경수로 2기를 북한에게 제공하는데서 재정과 건설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임.</li> <li>· 日本도 경수로 프로젝트의 관리와 재정분야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의향을 표명했음.</li> <li>· 美國 역시 중유제공을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폐연료봉의 안전 보관 및 처리를 원활히 하</li> </ul>	<p>0 勞動新聞, 생물무기 보유 보도 부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NBC-TV 방송에 의하면 최근 미국이 우리가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핵무기로 신속히 보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.</li> <li>- 우리에게는 생물무기도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음.</li> </ul> <p>0 金正日, 전천군관리사업소장 정춘실에 격려 서한</p> <p>* 12.16字 中放 보도</p> <p>0 黨·政 고위간부들, 국제친선 전람관 참관</p> <p>* 참석 : 이종옥, 박성철, 김병식, 김영남, 전명호, 한성룡, 최태복, 양형섭, 홍석형 外</p>	<p>0 라빈 이스라엘총리, 對北 비밀협상은 잘 못이었다고 언급</p> <p>* 기자회견 (서울)</p> <p>- 북한이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국가 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중동평화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.</p> <p>- 이스라엘은 북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과 비밀협상을 벌인바 있으나 대단히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음.</p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16	<p>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참가의사를 밝혔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국 정부는 또 KEDO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음.</li> <li>- 3국은 '95. 2월에 KEDO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몇주 간 추가협의와 함께 참가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임</li> </ul> <p>0 國會, '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'임을 명시한 WTO협정이행특별법안 통과  * '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' 제6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함.</li> </ul>		
12.17	<p>0 離任 李洪九 통일부총리, 통일전망은 북한체제 변화가 큰 변수라고 언급  * 기자간담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일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</li> </ul>	<p>0 주한미군 헬기, DMZ내 북한지역에서 격추  &lt; 中·平放 보도 내용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.17 10:45 적 직승기가 전선 동부 군사분계선을 넘어</li> </ul>	<p>0 美국방부 대변인, 미군 헬기 북한지역 비상착륙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정부는 현상황에서 비상착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2.17	<p>하며, 平和를 지켜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 과정에서 원칙을 수정 할 필요는 없으며 통일의 전망은 우리 정부의 원칙의 변화보다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좌우될 것임.</li> </ul> <p>0 韓美연합사, 美軍헬기 격 추 관련 軍停委 소집 요구</p>	<p>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지역 상공 깊이 불법침입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선인민군 고사포병들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서 단발에 적 직승기는 우리측 지역에 격추됐음.</li> </ul> <p>- 해당기관에서는 직승기의 불법침입사건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음.</p> <p>0 『祖平統』서기국, 한총련 의장 김현준 구속 비난 報道</p> <p>0 美하원 빌 리차드슨 의원, 북한 방문 (12.17~22) * 12.18 김영남, 양형섭 면담</p>	<p>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 조사중임.</p> <p>0 이가라시 日 관방장관, 미군 헬기 북한 지역 비상착륙 관련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려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- 북한군의 이동과 같은 긴장된 상황은 없음.</li> </ul> <p>0 北, 대만에 여행사무소 설치 예정 * 臺北 소식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은 대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의 한 여행사와 합작으로 '95.1월 臺北에 여행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임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18			<p>0 클린턴 美 대통령, 미군헬기 추락 관련 조종사 조속 송환 촉구 聲明</p> <p>- 訪北중인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을 통해 북한당국에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음.</p> <p>-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한 힐레먼 준장과 생존해 있는 홀 준장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송환임.</p>
12. 19	<p>0 金泳三 대통령, 미군 헬기 문제 조속해결위해 韓·美 공동노력 언급 * 주한미군 제2사단 사령부 방문</p> <p>- 韓·美가 힘을 합쳐 생존 조종사와 사망 조종사 유해의 조기송환을 위해 노력하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함.</p> <p>- 이번 사건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 주었음.</p>	<p>0 UN주재 북한대표부 副대사 김종수, 미군헬기 사건 관련 평화협정 체결 주장 * 기자회견</p> <p>- 미군 헬기가 북한영공에 들어왔을 때 경고사격을 했으나 착륙하지 않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격추시켰음.</p> <p>-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.</p> <p>0 만경대구역 협동농장들, '전인민적 소유제' 국영농장 전환</p>	<p>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, 美軍 조종사 송환지연시 美·北 관계 악영향 경고</p> <p>- 미국인들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원하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판단을 내릴 것임.</p> <p>0 사이토 日외무차관, 日, 대북경수로 지원금 최소액만 부담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2.19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만경대구역 국영농장 종업원 결의모임 개최</li> <li>* 참석 : 서관희, 김원진, 강현수 이신자</li> <li>- 이곳 구역에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겨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개변하는 역사적 사변을 남먼저 맞이하게 되었음.</li> <li>- 새로 조직되는 만경대구역 국영농장에는 구역안의 협동농장들과 국가기업소들이 다 통합되며 협동농장들은 분장으로, 국가기업소들은 직장으로 되게 됨.</li> </ul> <p>0 中放, WTO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관련 비난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농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대한 외세의 예속이 더욱 더 심화되며 되었으며 수백만 농민들은 명줄을 끊기우게 됐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언급</li> <li>* 기자회견</li> <li>- 일본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액만을 지출하게 될 것임.</li> </ul>
12.20	<p>0 한국 군함, 사상 첫 日本 기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해군 순항훈련부대가 일본 도쿄 하루미港에 입항, 4일동안 머물면서 일본방위청 예방 및 국산</li> </ul>	<p>0 『朝總聯』 국제국장 김태희, 남한 해군함대 도쿄항 기항 규탄 談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 표현으로서 朝·日사이의 앞으로의 관계발전에 중</li> </ul>	<p>0 美·北, 미군헬기 불시착 관련 軍停委 실무접촉 개최 (판문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헐러리 미군 중령, 유영철 북한군 중좌 참석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0	전투함 공개행사 개최	<p>대한 화근을 남기게 될 것임.</p> <p>0 金正日 노작·사회주의는 과학이다·중앙연구토론회 (인민문화궁전)</p> <p>* 참석 : 이종옥, 양형섭, 정하철 최기룡, 홍석형 外</p> <p>0 조선천도교회 교인들, 단군제 개최 (단군릉)</p> <p>* 참석 : 유미영, 한철식</p>	<p>0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, 美軍 조종사 송환지연시 美·北 관계 악영향 경고 * 기자회견</p> <p>- 조종사 송환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美·北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임.</p> <p>0 日, '95 전후처리예산 246억엔 책정 * 日대장성 발표</p> <p>- 日정부는 무라야마 정권이 주요과제로 삼아온 전후 50주년 예산으로 총 246억엔을 책정</p> <p>0 르 몽드紙, 北·獨, 平壤서 국교수립 준비 외교접촉 보도</p>
12. 21		<p>0 中央通信, 미군헬기 조종사 유해 송환·報道 발표</p> <p>- 공화국은 인도주의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죽은 상급준위 힐러먼의 시체를 판문점을 통하여 미군측에 곧 넘겨주기로 하였음.</p>	<p>0 美·北, 미군헬기 불시착 관련 장성급 고위접촉 개최 (판문점)</p> <p>* 스미스 미군 소장, 이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참석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금 해당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끝나면 우리 군대의 해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임.</li>   <li>0 政·黨·團體대표협의회, 국가 보안법 철폐 대책위원회 구성 (平壤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이기 위한 조직적 대책으로 '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'를 나오기로 결정했음.</li> <li>- 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음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원장: 장철(정무원 부총리)</li> <li>· 부위원장: 정신혁, 염태준</li> <li>· 위원: 김용호, 한영수, 이성호, 이진수, 이소영, 이 찬, 장재철, 정춘경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  <li>0 노동신문, 남한 군함의 일본 기항 비난 論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 반동들과 남조선 괴뢰들 사이의 공조체제, 군사적 공모결탁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음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망한 힐러먼 준위의 시신을 12.22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합의</li>   <li>0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, 北 송환 결정 환영 論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같은 인도적 조치를 크게 환영함.</li> </ul> </li>   <li>- 美정부는 생존자도 성탄절前에 석방되길 희망하고 있음.</li>   <li>0 머코스키 美 상원의원, 北 현재 지도력 부재 언급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자회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은 현재 지도력의 공백상태에 빠져있는 것같음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  <li>- 경수로를 지원받는 문제를 놓고 북한 권력층내부에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는 것같음.</li>   <li>0 北, '86년이후 일본에서 核재처리용 화학약품 10여 품목 수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1			<p>입說  * 다마키 日현대연구  소 이사장 언급</p> <p>- 북한은 '86년이후  '93년까지 사용후  핵연료 재처리 및  플루토늄의 핵무기  전용에 필요한 10  여가지의 화학약품  과 기자재등을 일  본에서 수입한 것  으로 알려졌음.</p> <p>0 美, 독일에 舊동독  대사관 공관 임대가  능성 타진說  * 프랑크푸르트 알게  마이너紙 보도</p> <p>- 미국은 연락사무소  설치와 관련, 옛  동독대사관이던 독  일이익대표부 공관  의 임대가능성을  타진해왔음.</p>
12. 22	0 統一院, '95년도 제3국 통 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1천 5백여회에 달한다고 발표 * 남북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상봉 현황	0 北韓, 미군헬기 조종사 데이비 드 하일먼 준위 遺骸 송환 (10:00, 판문점) ※ 訪北 빌 리처드슨 美 하원의 원 함께 板門店 통과	0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, 北억류 미 군조종사 조속 송환 촉구 <p>- 우리는 북한측이  흘 준위를 곧 돌려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2		<p>0 中放, 미군헬기 조종사 遺骸 인도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화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따라 미군직승기 조종사의 시체를 12.22 板門店에서 미군측에 넘겨주었음.</li> <li>- 미국측은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하여 공화국 정부에 사의를 표시했음.</li> <li>- 이에 앞서 방문중인 美하원 의원 빌 리차드슨과 우리 해당 일꾼사이에 조종사 시체 인도문제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의견교환이 있었음.</li> </ul>	<p>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</p> <p>0 訪北 리차드슨 美하원의원, 北, 남북대화 필요 인정 언급 * 韓昇洲 외무장관 면담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은 美·北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건이 조성돼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음.</li> </ul>
12. 23		<p>0 金正日 최고사령관 추대 3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(2·8문화회관)</p> <p>* 참석 : 강성산, 이종옥, 박성철 김영남, 최 광, 계웅태, 전병호 한성룡, 김철만, 최태복, 최영림 양형섭, 홍석형, 김광진 外</p> <p>&lt; 최광 기념보고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체혁명위업 계승·완성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全黨·全軍·全民이 김정일의 영도를 더욱 높이 받아들어야 함.</li> </ul>	<p>0 訪北 리차드슨 美하원의원, 헬기사건 처리 北군부 장악 언급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헬기사건과 관련, 제반사항을 북한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3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金正日의 영도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임.</li> <li>- 최근년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.</li> </ul>	
12. 24	0 金泳三 대통령, '남북간 화해협력시대 개막'을 새내각의 4大課題중 하나로 제시 * 국무회의 주재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년이 남북간 대화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통일원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</li> <li>-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돼야 함.</li> </ul> ※ 새 내각 4大課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세계화의 본격추진</li> <li>· 지방화시대의 본격준비</li> <li>· 남북간 화해협력시대 개막</li> <li>· 경제안정과 경쟁력 강화</li> </ul>	0 黨·政 고위간부들, 김정숙 생일 77돌 즈음 동상에 화환진정(혁명열사능) * 참석 : 강성산, 최광, 계웅태 전병호, 최태복 外  0 『韓民戰』 대변인, 남한정부 개각 규탄 談話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기정국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간교한 기만술책이며 문민독재를 미화분식하고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모략극임.</li> <li>- 문민의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5.6공 세력과 공공연히 손을 잡고 노골적인 파쇼화와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길에 나섰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임.</li> </ul>	0 美·北 군정위 일직 장교급 접촉 (12. 24~25, 판문점) * 조종사 송환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日程 논의  0 계리 릴 주한미군 사령관, 金正日에게 헬기 越境사건 관련 유감 서한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번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, 장래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약속</li> </ul> 0 日주간 文春, 러·북 군사협력 재개 보도 * 북한소식통 인용 (1.5字 최신호)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4	<p>0 金惠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,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강조 * 취임식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민족공동체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음.</li> <li>- 통일문제를 현실로 끌어내려 南北關係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.</li> </ul> <p>0 金惠 신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,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 추진 언급 * 기자회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북관계는 실질적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겠음.</li> <li>- 남북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,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94. 9 파노프 외무차관 訪北시 미그 전투기 북한내 생산 등 군사협력의 정서 체결을 북한측에 제시,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음.</li> </ul> <p>0 日, '95년도 외교과제로 北核대응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日외무성은 '95년도 주요외교과제로 △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비롯한 한반도정세 △등소평 사후 중국변화 △러시아정국의 움직임에 대한 對應 등을 발표</li> </ul>
12. 25	<p>0 孔魯明 신임 외무부장관, 美·北합의 이행에 南北關係개선 필수전제라고 언급 * 기자회견</p>	<p>0 노동신문, 남한정부 개각 비난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앞으로 北南관계가 더한층 악화되고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</li> </ul>	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 동향
12. 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·北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됨.</li> <li>-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임.</li> </ul>	장애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.	
12. 26	<p>0 統一院, '48년 이후 脱北 귀순자 7백여명으로 추산 * 보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48년 정부수립후 '94년 10월까지 귀순자는 7백여명에 이르며, '80년대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</li> </ul>	<p>0 中央通信, 미군헬기 사건 관련 · 詳報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사실은 미군 직승기에 의한 우리측 영공침입이 우리 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의도적인 정탐행위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음.</li> <li>- 미국의 호전계층은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면서 위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음.</li> <li>- 美군부가 새로운 협상기구를 내올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계속 외면해오고 있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하고 있음.</li> <li>- 사태의 엄중성으로 보아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지 않을 수 없음. 우리는 자기의 군법에 따르는</li> </ul>	<p>0 美·北, 헬기조종사 송환을 위한 장성급 접촉 개최 (판문점)</p> <p>0 허바드 美국무부 副 차관보, 北억류 조 종사 송환문제 협의 차 向北 * 美국무부 대변인실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 12. 26 주UN 대표부를 통해 훌준위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파견을 요청해왔음.</li> <li>- 허바드 副차관보로 하여금 12. 26 군용 기편으로 출발케 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변동향
12. 26		<p>조사를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처리할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가해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응당 인정하고 성근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뚜렷이 보여야 할 것임.</li> </ul>	
12. 27		<p>○ 平放, 핵폐기물 처리장 굴업도 선정관련 북한에 대한 피해 가능성 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화국 북반부에서 가까운 섬에 핵폐기물을 마구 버리려하고 있음.</li> <li>- 우리 공화국과 전체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우리에게까지 들씌우려는 고약한 행동임.</li> <li>- 김 0 0 일당의 책동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반민족적 범죄 행위로 규탄하며, 그 범죄적 계획을 무조건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.</li> </ul> <p>○ 黨·政 간부들, 예술영화·민족과 운명·제20부 관람 (인민문화궁전)</p> <p>* 참석 : 김병식, 김영남, 최광한성룡, 김철만 외</p>	<p>○ 이타르 타스통신, 北·러 별목협상 결렬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월 중순, 평양에서 열흘동안 시베리아에서의 별목, 목재가공과 삼림회복에 관한 협정 타결방안을 논의했으나 성과없이 끝났음.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8		<p>0 조선반핵평화위,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규탄 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폐기물 처리장을 감히 우리 측 가까이에 건설하려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적 대행위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임.</li> <li>- 김 0 0 일당의 책동을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핵폐기물의 희생지로 만들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함.</li> <li>- 남조선 통치배들은 핵폐기물 처리장을 굴업도에 건설하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당장 겉어치워야 함.</li> </ul> <p>0 中放,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平壤 도착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행정부 대표인 국무성 부차관보 허바드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했음.</li> </ul>	<p>0 허바드 美국무부 副차관보, 北억류 조종사 송환 협의차 판문점 통과 訪北 (12. 28~30)</p> <p>0 허바드 美국무부 副차관보, 訪北시 정치협상 不應 표명 * 張在龍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북이 조종사 송환을 위한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.</li> <li>- 우리는 核합의의 특정 부분과 훌준위의 석방을 명백히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음.</li> <li>- 북측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 등 여타 사항을 제기 하더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임.</li> </ul> <p>0 클린턴 美대통령, 北억류 조종사 조속 석방 촉구 * 기자회견</p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8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홀 준위의 신속한 석방을 원하고 있으며 그가 억류돼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.</li>   <li>○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, 조종사 석방 지연시 美·北합의 위태 경고</li>   <li>- 앞으로 1개월내에 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합의의 골격이 위태롭게 될 것임.</li>   <li>○ 고노 日외상, 對北 수교협상 재개 촉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외교포럼誌 기고문</li> </ul> </li>   <li>- 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해야함</li>   <li>- 日·北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제의 함.</li> </ul>
12. 29		0 中央通信, 미군헬기 조종사 홀준위 '자백서' (12.25字) 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가 조선의 영공깊이 침공</li> </ul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29		<p>한 것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나는 조선을 반대하는 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함.</li> <li>- 이러한 침공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된다고 인정함.</li> <li>- 나는 조선인민군측에서 불법 침입행위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며, 고향에 돌아가게 하여 주기를 애원함.</li> </ul>	
12. 30	<p>0 韓·美 정상, 미군 조종사 송환관련 전화통화</p> <p>&lt; 金대통령 발언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홀 준위가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함.</li> <li>- 南北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 韓·美가 함께 노력해야 함.</li> </ul>	<p>0 北, 미군헬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 송환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美국무성 부차관보 허바드가 대통령 특사로 12.28~30 평양을 방문하고 공화국 관계일꾼들과 회담을 진행했음.</li> <li>- 쌍방 사이의 회담들과 호상 합의한 양해문에서 美합중국 측은 미군 직승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불법침입한데 대하여 인정하고, 진심으로 되는 사죄를 표시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담보했음.</li> </ul>	<p>0 美, 미군 조종사 송환협상 관련 美·北·양해문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가 12.28~30 대통령 특사로 平壤을 방문, 북한 관계관리들과 협의를 가졌음.</li> <li>- 협의 결과, 양측은 다음과 같은 양해(understanding)에 도달했음.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30	<p>&lt; 클린턴 대통령 발언 要旨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 한 두 당사자간의 직접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美·北간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.</li> <li>- 이번 헬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미국의 어떤 성명도 美·北간의 양자협상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.</li> </ul> <p>0 외무부, 北억류 미군 조종사 송환 관련 論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보비 홀 준위가 송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.</li> <li>- 우리는 북한측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의 제거를 위해 南北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南北관계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.</li> <li>- 남북한간 협의에 의해 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는 유지되어야 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朝·美사이에 군부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에 동의했음.</li> <li>- 미국측은 남조선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측의 전쟁포로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빨리 송환되도록 지대한 협력을 할데 대한 우리측의 요구에 응했음</li> <li>- 미국측의 이러한 입장과 요청을 고려하여 공화국 정부는 관용성과 인도주의를 발휘하여 미군 직승기 조종사 보비 홀을 돌려보내기로 했음.</li> </ul> <p>0 中放, 미군헬기 조종사 판문점 인도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전 11:10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부대표 박림수 대좌와 미군 대령 슈미니크가 만나 인도인수 관련절차를 확증한 다음 미군직승기 조종사와 그의 소지품을 미군측에 넘겨 주었음.</li> </ul> <p>0 中放,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판문점 記者會見 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해문의 '적절한 형태의 군사접촉유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美측은 미군헬기가 북한영공에 법적으로 부당하게 침입했음을 인정했음. 美측은 진정한 유감(sincere regret)을 표시하고,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보장했음.</li> <li>2.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막기위한 조치들을 확인하고 취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(appropriate forum)의 군사적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.</li> </ol> <p>0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, 한국측에 訪北결과 설명 * 張在龍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</p>

■ 12월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 30	<p>며, 軍停委 활동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.</p> <p>0 孔魯明 외무부장관, 美·北 새 군사채널 설정 否認 * 고위당정회의</p> <p>- 美·北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군사채널은 기존의 軍停委를 의미할 뿐 새로운 별도 채널의 설정과 다름.</p> <p>0 合參 통합방위본부, 對간 첨대책본부로 개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은 美·朝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와 정부가 가능한 모든 통로를 다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.</li> <li>-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美國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.</li> <li>- 방문기간 남조선에 있는 비전 향장기수 송환문제도 논의되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남조선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음.</li> <li>0 국가환경보호위원회,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규탄 聲明</li> <li>0 숙천군 농업연합기업소, 국영 농장 전환 종업원 결의모임 * 참석 : 서윤석, 서관희, 김원진 김락희</li> </ul>	<p>지 '는 기존 軍停委 채널을 의미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은 앞으로 軍停委외에 북한과 직접 군당국자접촉을 갖지 않을 것임</li> <li>-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한국의 주권사항으로, 북한측의 관심사항을 한국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고 만약속했음.</li> <li>0 뉴욕타임스紙, UN군-北韓간 핫 라인 설치방안 검토 보도</li> <li>- UN군사령부와 북한 간에 의사소통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음.</li> <li>- 이는 핫라인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임.</li> <li>0 클린턴 美대통령, 조종사 송환관련 北</li> </ul>

월 일	한 국	북 한	주 변 동 향
12.30			<p>에 양보한 것 없다 고 강조</p> <p>- 미국은 그의 석방 을 위해 북한측에 양보한 것이 없으 며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이익을 희생시킨것도 없음</p>
12.31	0 朴建佑 외무부 차관, 장기 수 석방요구 전달 관련 카트먼 駐韓美부대사 면담	0 평양시 청년학생들, 새해 설맞 이 공연(만경대 학생소년궁전) * 참석 : 강성산, 박성철, 김영주 김병식, 이인모  0 『祖平統』서기국, 한총련 의 장 정역형 구형 비난 報道	0 日산케이신문, KEDO 중동국가 참여 보도 * 日정부소식통 인용  - KEDO에 사우디아라 비아, 아랍에미리 트연합 등 中東 수 개국이 참가하게 될 것임.



## **南北對話 年表**

1994. 10. 1~12. 31

發行日：1995年 2月 4日

發行處：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

